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과 대책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책임연구관 유 지 웅

<제 목 차 례>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2 |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3 |
| 제1절 노인과 노인범죄의 개념 | 3 |
| 제2절 노인 범죄에 관한 주요 이론들 | 5 |
| 1. 사회학습이론 | 5 |
| 2. 사회유대이론 | 6 |
| 3. 아노미이론 | 7 |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8 |
| 제3장 노인범죄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 11 |
| 제1절 노인범죄의 사회적 배경 | 11 |
|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 11 |
| 2. 노인 빈곤의 문제 | 14 |
| 3. 사회적 고립감과 아노미의 문제 | 17 |
| 4. 노인의 성문제 | 19 |
| 제2절 노인범죄의 특징 | 20 |
| 제4장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 | 25 |
| 제1절 노인범죄 발생 추이 | 27 |
| 제2절 노인 형법범죄 발생 추이 | 33 |

| | |
|-----------------------------------|----|
| 1. 사기 | 35 |
| 2. 폭행 | 39 |
| 3. 상해 | 43 |
| 4. 도박 | 44 |
| 5. 절도 | 46 |
| 6. 강간 | 50 |
| 7. 살인 | 53 |
| 8. 방화 | 56 |
| 제3절 노인 특별범죄 발생 추세 | 58 |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58 |
| 2. 도로교통법 위반 | 61 |
| 제4절 노인범죄의 일반적 추세: 소결 | 64 |
| | |
| 제5장 노인범죄 대책 | 69 |
| 제1절 정부 차원에서의 노인복지 대책 수립 | 69 |
| 제2절 경찰의 노인범죄 대책 | 70 |
| 1. 노인 폭력범죄 대책 | 71 |
| 2. 노인 절도 범죄 대책 | 73 |
| 3. 관련 대책 제언 | 74 |
| | |
| <참고문헌> | 78 |
| | |
| <표 차례> | |
| <표 1> 평균수명 및 사망자수 추이 (단위 : 세, 천명) | 12 |
| <표 2> 연령층별 장래추계인구 (단위: 명, %) | 12 |
| <표 3> 인구 고령화 국제 비교 | 13 |
| <표 4> 노인 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27 |

| | |
|---|----|
| <표 5> 연령대별 범죄자 발생 추이(단위: 명, %) | 29 |
| <표 6>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발생 추이 (단위: 명) | 32 |
| <표 7> 주요 노인 형법범죄자 발생 추이 (단위: 명, %) | 34 |
| <표 8> 노인 사기 발생 추이 (단위: 명, %) | 35 |
| <표 9> 주요 노인 여성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38 |
| <표 10> 노인 폭행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40 |
| <표 11> 노인 상해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43 |
| <표 12> 노인 도박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45 |
| <표 13> 노인 절도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48 |
| <표 14> 노인 강간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51 |
| <표 15> 노인 살인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54 |
| <표 16> 노인 방화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56 |
| <표 17>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발생 추이 (단위: 명, %) | 59 |
| <표 18>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 발생 추이 (단위: 명, %) | 62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인구 10만명당 노인범죄자 추이 | 31 |
| <그림 2>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추이 | 33 |
| <그림 3> 인구 10만명당 노인 사기범죄자 추이 | 37 |
| <그림 4> 인구 10만명당 노인 폭행범죄자 추이 | 42 |
| <그림 5> 인구 10만명당 노인 폭행범죄자 비율 추이* | 42 |
| <그림 6> 인구10만명당 노인 상해범죄자 추이 | 44 |
| <그림 7> 인구 10만명당 노인 도박범죄자 추이 | 46 |
| <그림 8> 인구 10만명당 노인 절도범죄자 추이 | 49 |
| <그림 9> 인구10만명당 노인 절도범죄자 비율 추이 | 50 |
| <그림 10> 인구10만명당 노인 강간범죄자 추이 | 52 |
| <그림 11> 인구10만명당 노인 살인범죄자 추이 | 55 |

| | |
|---|----|
| <그림 12> 인구 10만명당 노인 살인범죄자 비율 추이 | 55 |
| <그림 13> 인구 10만명당 노인 방화범죄자 추이 | 57 |
| <그림 14> 인구10만명당 노인 방화범죄자 비율 추이 | 58 |
| <그림 15> 인구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추이 | 60 |
| <그림 16> 인구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비율추이 | 60 |
| <그림 17> 인구10만명당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 추이 | 64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가들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시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문제들을 수반한다.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가난한 노인들,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노령화 사회가 낳은 여러 가지 노인문제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노인 범죄의 증가이다. 최근 노인범죄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노인들이 범죄의 피해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강력범죄 가해자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경고를 던져주고 있다. 물론 노인들이 범죄 가해자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지만, 노령화 추세 속에서 강력범죄 가해자로서 부각되고 있는 노인범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노인 범죄의 유형별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흐름과 변화에 주목하고,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

에 기초하여 경찰 차원에서의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노인 범죄의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일반적 특성을 찾아내고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차원에서의 대책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노인 범죄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노인문제와 노인범죄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노인범죄의 특성을 살핀다. 본론적으로 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노인범죄 발생 실태를 범죄 유형별로 분석하고,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차원에서의 대책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방법을 취하였다.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노인 범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문헌 조사를 행하였으며, 노인범죄 발생 추세 분석을 위해서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공식 통계자료는 검찰청 『범죄분석』으로서,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노인범죄 발생 추이와 범죄 유형별 추이 분석을 통하여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시사점과 대책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노인과 노인범죄의 개념

노인이라는 용어는 생활연령 또는 달력상의 나이를 뜻하는 역연령(曆年齡)의 의미와 신체적·정신적 노화 등 다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노인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의 정의를 기초하고 하고 있는데, 이 학회에서는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한다.¹⁾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은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생체의 조직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셋째, 생체의 전반적인 기관·조직·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 다섯째, 생체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함으로써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규정된다.²⁾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간단히 말하면, 노인은 노화의 일정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노화의 정도가 다르며, 스스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노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비어징(K. Wirsing)은 나이에 대한 이해를 크게 세 가지 나이, 즉 달력상의 나이, 사회적 나이³⁾, 기능적

1) 김인숙,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11, 1998, 345-359쪽.

2)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 이해』, 학문사, 1999.

3) 사회적 나이(social age)란 어떤 특정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관심이나 기대를 고려한 나이이다. 사회적 나이로 볼 때 노인은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퇴직하였거나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이양한

나이⁴⁾로 나뉘서 설명한다. 한편, 브린(Breen)에 의하면, 노인은 생리적·생물학적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이면서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며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⁵⁾

이러한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따를 때, 노인범죄의 개념은 ‘복합 형태의 과정을 통해 기능과 능력이 퇴화에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행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⁶⁾라는 의미에서 노인범죄의 개념을 사용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규정은 달력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으로 간주한다.⁷⁾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해인 회갑의 영향으로 60세를 노인 연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⁸⁾ 최근에는 60세보다는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⁹⁾

법률상에서도 노인의 나이에 대한 규정은 서로 엇갈린다. 「노동복지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한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특히 여성)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 4) 기능적 나이란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심리적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의 정도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은 노화로 인한 다른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개인의 특수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노인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 및 개인간의 노화의 특성이 다름을 감안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편의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 5)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 6) 구현아·이용희,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 7)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65세 한계연령은 1889년 6월 22일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양로 및 퇴직보험”과 관련된 법 조항에서 유래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당시 설정된 65세 한계연령이 독일 노인들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김근홍, “노인문제와 노년학”, 김근홍 외,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 289쪽).
- 8) 김태현, 『노인학』, 교문사, 2007.
- 9) 정태인 외, 『사회문제』, 그린, 2008, 182쪽.

」에 따르면, 노인이란 경로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연령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법」은 가입대상자의 자격을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정의함으로써 60세 이상의 연령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가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범죄분석과 관련된 통계들이 만 60세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2절 노인 범죄에 관한 주요 이론들

에이커스 등(Akers, La Greca, Sellers, 1988)은 기존의 범죄이론들인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아노미 이론 등을 노인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그의 논의를 중심으로 노인범죄 이론들을 살펴본다.

1.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을 범죄행위 분석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은 Burgess와 Akers이다. 이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행위의 학습원칙들과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통합한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학습개념으로서 차별적 강화, 차별적 접촉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모방을 통해 생성된 사회적 행동은 보상(reward)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강화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강화된다. 반대로 사회적 행동은 부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약화되거나, 보상의 결여로 약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이 사회학습이론을 노인의 음주에 적용해 보면, 노인들은 다른 술꾼과 많이 접할수록, 음주를 통해 부정적 결과를 얻기보다는 사회적 보상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로 음주를 정의할수록 음주를 많이 할 것이고 알콜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 사회학습모델은 노인범죄자와 일탈행위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¹⁰⁾

2. 사회유대이론

이 이론의 기본적인 원칙은 ‘비행행위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하거나 깨어질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Akers 등은 이 사회유대이론이 노인의 일탈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이론에 의하면, 유대감이 강하면 사회에서 보다 더 순응적이 되고, 가족, 친구,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하면 개인은 일탈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이론은 청소년과 노인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론적 모델의 추상적 개념과 가정은 같지만, 이 이론이 노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사회적 유대의 경험적 지표들은 청소년의 그것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족에 대한 애착(attachment)이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중요한 반면, 노인에게 있어서는 친구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식, 형제자매에 대한 애착도 중요하다.¹¹⁾ 이렇듯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사회유대이론은 청소년과 노인의 일탈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

10) 이진중·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26쪽.

11) 사회유대이론의 또 다른 요인인 참여(Involvement)도 노인범죄의 중요한 변인이다. 예를 들어,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에서의 활동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노인들은 취미생활(자원봉사활동, 혹은 교회에서의 활동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 즉, 보다 통합적이고 유대감이 강한 노인이 일탈행위를 더욱 적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3. 아노미이론

아노미 이론은 하나의 사회구조적 조건으로서 아노미가 일탈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는 이론이다.

노인의 긴장과 관련된 많은 부분은 Rosow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그는 노령화의 세 가지 핵심적인 차원을 논의하였다. 첫째는 은퇴, 배우자의 죽음 등이 노인의 역할과 지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둘째로 노인은 역할을 상실하게 되지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은 거의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며, 셋째로 노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위주가 되는 사회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지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에게 있어서의 아노미의 예측인자로서 제시되었다.¹²⁾

아노미와 노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아노미를 노인 범죄의 독립변수로서 사용하기보다는 종속변수로서 노인들의 아노미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노인들 사이에서 아노미적 긴장과 일탈적 반응을 관련시키는 시도 중의 하나가 알콜 남용이며, 또 다른 형태는 노인의 자살이다.

Akers 등은 아노미 이론을 노인 일탈과 범죄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학습이론, 사회유대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적용되어 온 일부 긴장 개념과 측정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아노미 개념의 측정은 직업적, 교육적 열망과 기대 사이의 인지된 불일치이지만, 노인에게 있어서 더욱 관련이 있는 아노미 개념은 목표와 실제 성취된 것 사이의 불일치로서의 아노미이다.

이러한 아노미 이론을 노인일탈에 적용할 때의 기본적인 가설은 청소년

12) 이진중·전영실, 앞의 책, 27쪽.

년에게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높은 수준의 아노미를 경험하는 노인은 범죄와 일탈행위를 더욱 많이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¹³⁾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미국에서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노인범죄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노인범죄 연구는 연도별 추세 분석이 대부분이었으며, 노인범죄의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노인범죄의 원인과 관련하여 노인범죄가 실업(Kercher, 1987), 경제적 빈곤(Kercher, 1987; Flynn, 2000),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지위상실로 인한 아노미(Fishman, 1977; Wilbanks, Murphy, 1984)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뤄졌다. 이밖에 일탈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결속, 아노미, 사회적 학습, 하위문화 등이 노인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Malinchak, 1980; Dupree-Broskowski-Schonfield, 1984).

국내에서의 노인범죄와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이뤄졌다. 국내에서의 노인범죄와 관련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한 흐름은 가해자로서의 노인범죄자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흐름은 범죄 피해자로서의 노인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의 연구들은 대체로 범죄 발생 추세에 관한 연구들이다.¹⁴⁾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범죄백서』나 『범

13) 이진중·전영실, 위의 책, 28쪽.

14) 범죄 가해자로서 노인의 범죄에 관한 국내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종오,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7; 김인숙,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11, 1998; 이영남,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26, 1998; 김승용, “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일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0년 가을호, 2000; 오홍수,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연구』, 2000년 봄호, 2002; 이현희·원영희·구자숙, “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2), 2003; 이종원,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구현아·이웅혁,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죄분석』 등 기존의 공식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범죄 발생 추세 및 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후자 연구의 흐름은 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노인범죄 연구인데, 노인범죄피해 실태나 범죄피해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¹⁵⁾ 또한 최근에는 노인이 범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이뤄진 연구가 있다.¹⁶⁾

이러한 국내 연구들 가운데 이건중·전영실(1995)의 연구는 범죄동기, 생활정도, 주거지, 직업 등을 중심으로 범죄발생 실태를 파악했는데, 범행동기에서는 인간관계로 인한 범죄발생률(43.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정도에서는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의 범죄발생률(61%)이, 주거지에서는 대도시(78.2%), 직업에서는 무직(48%)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승용(2000)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의 노인범죄 발생추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노인범죄 증가율이 전체 범죄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 구현아·이용혁(2007)의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노인범죄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최근 10년간 노인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범죄형태는 강력범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현희 등(2003)은 노인범죄의 추이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관련요인을 중심으로 인과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할수록 노인 형법범죄는 감소하고,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형법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노인들의 재산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한동효(2008)는 지난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2년 동안 노인

15) 범죄 피해자로서 노인의 범죄에 관한 국내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구자숙·이현희·원영희·전영실, “노인의 범죄 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제 1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허경미,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004; 허경미, “도시 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2), 2006.

16) 이러한 관점에서 이뤄진 연구로서 장준오 외의 연구가 있다.(장준오 외, 『노인범죄 및 범죄 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08, 2008).

17) 김승용, “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일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0년 가을호, 15-33쪽.

범죄의 추세를 살피고 있는데, 전체 범죄에서 노인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형법범죄 중에서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복지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그것들이 노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노인들의 형법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 노인범죄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제1절 노인범죄의 사회적 배경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0%에 이르러 초(超)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¹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0년 75.9세,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5년 현재 평균수명 77.9세에서 점차 높아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8) 일반적으로 UN은 한 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미만인 국가를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4%~7% 미만을 성년인구국(youthful population), 7% 이상을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고 칭하고 있다. 1990년 UN 기준은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분류하였고, 14% 이상인 단계에서 안정을 이루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지칭하고 있다.

<표 1> 평균수명 및 사망자수 추이 (단위 : 세, 천명)

| | 1971 | 1981 | 1991 | 2000 | 2002 | 2005 | 2010 | 2030 | 2050 |
|------|------|------|------|------|------|------|------|------|------|
| 계 | 62.3 | 66.2 | 71.7 | 75.9 | 77.0 | 77.9 | 79.1 | 81.9 | 83.3 |
| 남 자 | 59.0 | 62.3 | 67.7 | 72.1 | 73.4 | 74.8 | 76.2 | 79.2 | 80.7 |
| 여 자 | 66.1 | 70.5 | 75.9 | 79.5 | 80.4 | 81.5 | 82.6 | 85.2 | 86.6 |
| 사망자수 | 238 | 238 | 250 | 247 | 247 | 255 | 287 | 493 | 736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 1.)

<표 2> 연령층별 장래추계인구 (단위: 명, %)

| | 1980 | 1990 | 2000 | 2005 | 2010 | 2020 | 2030 |
|--------|------------|------------|------------|------------|------------|------------|------------|
| 총인구 | 38,123,775 | 42,869,283 | 47,008,111 | 48,138,077 | 48,874,539 | 49,325,689 | 48,634,571 |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0-14세 | 12,950,775 | 10,973,592 | 9,911,229 | 9,241,187 | 7,906,908 | 6,118,161 | 5,525,336 |
| % | 34.0 | 25.6 | 21.1 | 19.2 | 16.2 | 12.4 | 11.4 |
| 15-64세 | 23,716,967 | 29,700,607 | 33,701,986 | 34,530,248 | 35,610,778 | 35,506,403 | 31,298,528 |
| % | 62.2 | 69.3 | 71.7 | 71.7 | 72.9 | 72.0 | 64.4 |
| 65세이상 | 1,456,033 | 2,195,084 | 3,394,896 | 4,366,642 | 5,356,853 | 7,701,125 | 11,810,707 |
| % | 3.8 | 5.1 | 7.2 | 9.1 | 11.0 | 15.6 | 24.3 |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주) 2006.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임.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366천명으로 25년 전인 1980년 1,456천명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으며, 25년 후인 2030년에는 2005년의 2.7배 정도인 11,810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우리나라 인구는 14세 이하 연령층의 지속적인 감소와 65세 이상 연령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세계 각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로 볼 때, 우리가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노인 인구비율이 낮지만, 그 증가 속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고,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 정도 소요되었던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⁹⁾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빠른 노령화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프랑스, 스웨덴,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들에서의 노인문제는 주로 노인 인구의 증가에서 오는 문제였다. 이러한 나라들은 인구의 노령화과정이 비교적 길었기 때문에 노인문제들이 서서히 대두되었으며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을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서구 선진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⁰⁾

<표 3> 인구 고령화 국제 비교

| 국가별 |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달연도 | | 소요연수 |
|-----|------------------|------|------|
| | 7% | 14% | |
| 일본 | 1970 | 1994 | 24년 |
| 프랑스 | 1864 | 1979 | 115년 |
| 스웨덴 | 1887 | 1972 | 85년 |
| 독일 | 1932 | 1972 | 40년 |
| 영국 | 1929 | 1976 | 47년 |
| 미국 | 1942 | 2013 | 71년 |

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s of World Population*.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대별해 보면, 직장은퇴 후 소득 상실에 따른 경제적 문제, 신체적 노화에 따른 적응 능력

19)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결과」, 대전:통계청, 2001.

20) 김근홍, “노인문제와 노년학”, 김근홍 외,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 282쪽.

의 저하 및 건강 악화 등의 건강문제,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고립과 소외의 문제, 그리고 사회 및 인간관계의 단절에 따른 역할 상실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200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5년 65세 이상 연령층의 44.6%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문제’ (30.1%), ‘외로움·소외감’ (6.4%) 순이었다. 지난 2002년에는 ‘건강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이 당시의 33.9%보다 10.7% 포인트 늘어나 노인계층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건강문제는 오히려 11.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²¹⁾

2. 노인 빈곤의 문제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일터에서 물러나고 그와 함께 경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노인의 노동력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젊은 노동력으로 대체된다.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노동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일터에서 물러난다.²²⁾

한 개인이 노인이 되어 일터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곧 소득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009.5)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만 53세이다.²³⁾ 이러한 평균 정년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현

21) 권승 외, 『사회문제론』, 공동체, 2008, 93쪽.

22)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나마 노인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곳은 농어촌의 1차산업 현장이거나 서비스산업의 주변부일 뿐이다.

23) 이 통계조사에서 조사대상 고령층(55-79세)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 그만둔 경우가 43.7%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이직 연령은 만 53세로 나타났다. (통계청, 「2009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09, 17쪽)

재 53세인 사람은 향후 20년 이상을 직장 없이 살아야 한다. 더욱이 45세 정년이라는 의미에서 사오정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는 요즘, 앞으로 노년층에 편입될 사람들의 경제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이 일찍 일터에서 은퇴한다고 할지라도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면 경제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충족시켜주는 미흡하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인구의 16.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들은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에 따라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의 노년세대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 교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인한 과다지출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 자식에 의한 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노후 생활을 준비한 노인의 비율은 28.3%로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²⁴⁾

한편, 오늘날 우리사회의 노령화 추세 속에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추세 속에서 가족과 친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²⁵⁾ 그 결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치료비 부담으로 절대적 빈곤상태에

24)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 308쪽.

25) 한 사회의 노령화는 그 사회의 노인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노인인구의 절대 수 및 비율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비율을 축소시키는 한편, 노인부양 및 의료비 부담은 가중시킨다. 사회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이유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부양비 부담은 증가해 나가는 반면, 가족구조는 핵가족화되고 노인부양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진다는 것이다.

놓여 있는 노인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이 앓는 만성질환은 의료기관 이용횟수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인의 의료비 문제는 다른 세대들보다 더욱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비노인층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⁶⁾ 더욱이 노인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총진료비 증가율에 비해서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²⁷⁾ 노인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병원진료비나 입원비의 20~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심각한 재정문제로 대두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21만원으로 비노인가구 소득 평균 316만원의 3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²⁸⁾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 가구 가운데 1/4이 평균 한달 36만원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75%가 한차례 이상 빈곤 상태를 경험했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율(25.9%)도 일반가구(7.9%)의 세 배를 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⁹⁾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생계형 절도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경제적 수입을 획득하기 어려워 생활고를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생계형 절도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긴장이론(Strain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생활고와 범죄의 상관성이 설명 가능하다. 로버트 머튼은 그의 아노미 이론에서 기대와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아노미를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26) 김근홍, 앞의 논문, 287쪽.

27) 이는 노인질환의 특성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므로 치료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기간이 길고 여러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기 마련이다(김진순, “노인보건 의료 및 건강서비스”, 『노년학의 이해』, 대영출판사, 2000).

28) 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2007.10, 8쪽.

29) 2007 경제학 공동학술자료집, 국회예산처, 엘지경제연구원; 구현아·이용혁,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71쪽.

따르면 개인의 기대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어날 때, 개인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된다. 모든 노인들은 노후에도 일정한 소득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기대가 있기 마련인데,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제공받지도 못하며,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노인들이 갖는 편안한 노후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커질 때, 노인들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인범죄에 관한 여러 연구들도 노인이 일으키는 범죄에 있어서 은퇴와 실직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조기은퇴가 노인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하며,³⁰⁾노인의 상대적 빈곤이 단순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한다.³¹⁾

경제 불황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업률과 노인의 재산범죄는 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실업이 늘어나면 합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심리적 불안이 증가하므로 노인들이 일탈적 행동이나 범죄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³²⁾

3. 사회적 고립감과 아노미의 문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30) Fisherman, "Crime Wave as Ideology", *Social Problems* 25, 1977, 531-543.

31) Shichor, Kobrin, "The Extent and Nature of Lawbreaking by the Elderly: A review of arrest statistics", *Elderly Criminals*, Oelgeschlager, Gunn and Hain Publisher's Inc., 1994.

32) 구현아·이웅혁,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13쪽.

대가족 중심의 가족구조에서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의 가족구조에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생산 활동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대가족구조 안에서 오랜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연장자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에서는 노인들은 더 이상 과거 노인세대가 가졌던 연장자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누리지 못한다.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고 사회적 고립감은 갈수록 증대된다. 오늘날의 산업구조의 변화도 노인들의 역할 상실을 가속화시킨다.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인들이 생산 현장에서 활동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물러났거나 조기 은퇴한 노인들은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채 무력감과 고립감에 직면한다.

현대화의 특징 중의 하나인 도시화는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 유입을 가속화시키면서 세대간의 공간적 격리와 함께 노인들의 지리적 격리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차이는 세대간의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거나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노인층의 심리적 고립과 소외감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소외는 특히 노인이 더 이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심화되며 결국 가정 내에서조차 소외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특히 자녀와의 별거나 배우자와의 사별은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심화시킨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인 가구 중에서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은 1995년 36.6%이던 것이 2000년에는 44.9%, 2004년에는 51.2%에 이르렀다. 1994년 이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장남이 부모와 동거하며 노인을 부양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인 노인부양방식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은 더욱 심화된다.³³⁾

노인들이 경험하는 배우자의 죽음이나 건강의 악화, 사회적 고립감 등은 노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아노미 상태를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의 죽음이나 자녀 세대와 별거하는 상황은 노인 스스로 더 이상 어떠한 사회적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역할상실에 따른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좌절감에 대한 대응방식은 폭력범죄로써 표출될 수 있다.

긴장이론에서는 빈곤과 직업적 지위상실, 역할의 상실에 따른 스트레스와 다양한 형태의 긴장상태, 좌절감 등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합법적인 성향을 나타나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분노로 표출될 수 있으며, 그것은 폭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4. 노인의 성문제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체적으로 더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70-80대에까지 왕성한 성적 능력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규범에 적합하지 않았다. 노인들은 성생활이나 성행위가 불가능하고 노인에게는 성적 욕구가 없으며, 나아가 성행위 자체가 노인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편견이 지배했다.³⁴⁾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의 성행동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노인들

33) 권승 외, 『사회문제론』, 공동체, 2008, 96쪽.

34) 노인들은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노인 성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대개 남성의 성기능은 장애는 30대의 30%, 40대의 40% 등 연령대와 장애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60대의 40%, 70대의 30%는 성기능의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01.5.24).

도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성생활에 정년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³⁵⁾ 또한 2006년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사회연구소에서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명 가운데 6명이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조사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70-80대 노인들이었다. 노인 성문제 전문가들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성생활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성생활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될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노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거나 이성 친구를 가진 남성을 제외한 다수의 노인 남성들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통로를 갖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성적 충동이 성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노인의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 정신지체여성이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아동성폭력과 관련한 위험 계층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

제2절 노인범죄의 특징

노인범죄는 노인인구의 특성에 기인하여 일반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노인범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노인들의 범죄율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건중·전영실(1995)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요인들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노인 연령층의 범죄율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35) 광주·전남 노인의 전화, “노인의 성, 정년은 언제인가?”, 제2회 노인 보건·복지 세미나 주제발표 자료집, 1997.

낮은 이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범죄성이 감소하거나 범죄의 빈도가 감소하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의 빈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인구의 일정한 비율이 삶 전체를 통해서 범죄를 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범죄를 보다 적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⁶⁾

둘째는, 인간은 노령기에 접어들면 신체적인 노화현상을 겪게 되는데, 신체적 노화는 민첩성, 순발력, 공격성 등을 감퇴시켜 노인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적 노화는 심리적 위축을 동반해서 노인이 범죄에 접근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³⁷⁾

셋째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성이 더욱 성숙해지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극적인 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매사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범죄행위는 줄어든다.

넷째로, 노인들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노인이 젊은 세대와 비교해서 볼 때, 사회규범에 대한 동조에 중요성을 둔 사회화를 경험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노인은 사회규범에 더욱 더 적응을 잘하게 되고 규범에 사회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가능성은 줄어든다.

다섯째로, 노인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범죄의 손익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는 것이다. 노인은 범죄행위로부터 기대되는 순간적 보상은 절대적 상대적 의미에서 더욱 하찮은 것이 되고, 검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자각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범죄 발생빈도에서 볼 때, 노인범죄율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상대

36) 이진중·전영실, 앞의 논문, 25쪽.

37) 김승용, 앞의 논문, 131쪽.

적으로 낮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노인범죄율의 증가 추세는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인 범죄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일반범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재범율이 높다는 것이다.³⁸⁾ 노인범죄는 비교적 경미한 재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상습범죄의 발생율이 높다.³⁹⁾

노인범죄자들 가운데 일부는 만성적 범죄인(chronic offender)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의 범죄 특성은 범죄가 직업화된 단계에 속해서 자기만의 특정한 수법 또는 기술을 가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만성적 범죄인의 특성은 매우 어린 나이에 범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Moffitt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범죄자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한 유형은 평생지속형(life course persistent type)이고 다른 한 유형은 청소년기 제한형(adolescents limited type)이다. 전자는 어린 시절의 범행이 평생 지속되는 유형이고, 후자는 발달 특성상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르다가 성인이 되면 범죄를 그치는 유형이다. 이 두 유형 가운데 전자의 유형, 즉 평생지속형이 만성적 노인범죄자에 해당한다.⁴⁰⁾

상습범죄자들을 유형적으로 분류해 보면, 범죄의 시작이 25세 이전인가 그 이후인가에 따라서 조발(早發)형과 지발(遲發)형로 분류되는데, 이 두 유형은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보인다. 조발형 상습범죄자는 소질적 요인이 강하다. 조발 상습범죄자에게는 의지박약을 중심으로 정신병

38) 이건중·전영실(1995)의 연구에 의하면, 대검찰청 전산실에서 가해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건 중 1991년과 1992년에 처분이 확정된 203건의 수사재판 기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과자의 비율은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초범시의 나이는 40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24%를 차지했다. 전과 경력이 있는 노인범죄자들의 경우 비교적 나이가 들어서 초범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39) 지광준,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 『한국노년학』, 제21권 3호, 2002, 2쪽.

40) 이용혁, 앞의 논문, 2008, 18쪽.

질이 압도적으로 많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나 자녀 등 혈연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초범인 노인범죄자는 기질적 장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초범자에는 정상인과 정신병자가 많고 정신병질자는 적으며,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발형 상습범죄자는 조발형 상습범죄자와 초범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습범죄는 내면적인 성격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 유형이다. 상습적인 직업범죄에는 범죄 자체를 생활의 수단으로 여기는 상습적인 소매치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절도, 조직범죄, 도박, 마약, 매춘 등이 포함될 수 있다.⁴¹⁾

상습범죄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범죄유형은 절도범죄이다. 재범수형자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절도범죄이다. 상습 범죄자들이 절도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강력범죄만 저지르게 되면 형만 무거워지며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절도나 장물에 관련된 범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⁴²⁾

상습범죄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범죄 유형으로서 마약류 범죄가 있다. 특히 노인층의 마약류 범죄가 많은데 이는 성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마약류의 남용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점차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공급에 가담하게 되면서 상습적이고 직업적인 생애 지속형 범죄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노인마약사범은 대체로 재범자나 돈을 벌기 위한 판매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현아·이용혁(2007)의 보고서에서는 마약수사관과의 인터뷰 결과 부산지역 마약 제조책의 대부분은 60대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1) 상습범죄자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일탈과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의 상습범죄자는 어린 시절부터 일생을 거쳐 반사회적인 행동과 일탈과 범죄를 저질렀던 남성들이다.

42) 이상현, “상습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38쪽.

노인범죄는 이러한 두 가지 주요한 특징 이외에도 노인범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범죄의 비중이 높다는 점, 여성보다 남성의 범죄 비율이 높다는 점⁴³⁾ 등이 그 특징으로 꼽힌다.

43) 여성 노인범죄자의 비율은 범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노인범죄 중에서 15~25%를 차지한다.

제4장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

이 장에서는 공식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범죄 추세를 분석한다. 여기에서 공식통계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이다. 공식통계 자료는 형사사법기관에 적발된 범죄 건수를 산출한 것으로서 적발되지 않은 범죄, 곧 감춰진 범죄의 규모까지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통계가 범죄 신고에 의존하는 만큼 범죄 신고율의 변화에 따라서 공식통계 수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식통계 자료만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 자료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로서 범죄 발생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세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 실태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자료이다. 이 장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노인범죄 발생 추이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고,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유형별 발생 추이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발생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범죄발생빈도 조사이다.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빈도 추이를 살펴으로써 범죄 발생의 추이를 살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범죄 발생 빈도만으로 범죄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인구의 증감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연령층의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더욱이 해당 연령층의 인구 증감을 고려하여 범죄 발생 추이가 분석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추이는 미혼 여성과 남성의 증가 추세와 젊은 가구들이 자녀를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밖에 낳지 않는 추세 속에서 청소년 인구의 급감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함께 61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급감과 노인인구의 급증이라는 최근의 인구 변화를 반영하자면, 단순히 범죄발생 빈도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연구에서의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통해서 범죄발생 추이를 분석할 때에 나라들간의 국제적인 비교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추세 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장에서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각 연도별 전체인구와 노인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각 연도별 전체인구와 60세 이상 인구를 사용하였다.⁴⁴⁾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의 증가율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직전 연도나 특정 연도 대비 증가율을 구하는 방식 대신에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증가율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증가율을 분석하였다.⁴⁵⁾ 일반적으로 범죄 증가율 분석은 직전 연도나 특정 연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교 방식은 범죄 증감의 기복이 심한 경우 객관적 추세와는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증가율 분석 방식은 최근에 이뤄진 장준오 외(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⁴⁶⁾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전체 범죄 추세 속에서 노인 범죄의 추세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서 단순히 인구10만명당 전체 범죄자수와 인구 10만명당 노인범죄자수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을 넘어서,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 대비 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수 비율을 산출하고 그 추이를 그림으로 보였다. 이러한 비교 방식은 노인범죄가 전 연령층 평균에서 차지하

44)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서는 61세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45) 1997년 기준 2008년까지 범죄 증가율 평균 산출식은 $((1998년\ 범죄자수-1997년\ 범죄자수)/1997년\ 범죄자수*100 + (1999년\ 범죄자수-1997년\ 범죄자수)/1997년\ 범죄자수*100 + \dots + (2007년\ 범죄자수-1997년\ 범죄자수)/1997년\ 범죄자수*100)/10$ 이다.

46) 장준오·유홍준·정태인·이완수·노용준,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08, 2008.

는 비중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그 비중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한 눈에 보여준다. 이 장의 분석에서 ‘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 비율 추이’는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즉, 전 연령층) 대비 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수 비율 추이를 말한다.

제1절 노인범죄 발생 추이

<표 4> 노인 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 범죄자 | 인구10만 명당 범죄자 | 노인범죄 자 | 인구10만 명당 노인 범죄자 |
|---------------------|------------|--------------------|-----------|-----------------------|
| 1997 | 1,986,254 | 4,322 | 34,211 | 810 |
| 1998 | 2,196,565 | 4,746 | 41,847 | 947 |
| 1999 | 2,306,824 | 4,948 | 52,551 | 1,137 |
| 2000 | 2,241,635 | 4,769 | 54,371 | 1,125 |
| 2001 | 2,321,580 | 4,902 | 56,519 | 1,122 |
| 2002 | 2,297,030 | 4,823 | 57,527 | 1,092 |
| 2003 | 2,296,945 | 4,799 | 59,759 | 1,086 |
| 2004 | 2,284,095 | 4,755 | 66,943 | 1,170 |
| 2005 | 1,965,571 | 4,083 | 74,770 | 1,263 |
| 2006 | 1,932,729 | 4,002 | 82,323 | 1,347 |
| 2007 | 1,989,862 | 4,107 | 84,028 | 1,329 |
| 전체 합계 | 23,819,090 | | 664,849 | |
| 전체 범죄 대비 노인범죄 | 100.0% | | 2.8% |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9.9% | | 84.3% |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통계청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 1997년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범죄자수 증가율 평균임. 산출식은 $((1998년\ 범죄자수 - 1997년\ 범죄자수) / 1997년\ 범죄자수 * 100 + (1999년\ 범죄자수 - 1997년\ 범죄자수) / 1997년\ 범죄자수 * 100 + \dots + (2007년\ 범죄자수 - 1997년\ 범죄자수) / 1997년\ 범죄자수 * 100) / 10$ 이하

통계에서도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값 산출방식은 같음.

주1)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 산출에 이용된 각 연도별 전체 인구통계 및 노인인구통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함.

위 <표 4>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전체 범죄자수와 61세 이상 노인범죄자수, 그리고 각각의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조사 산출한 것이다. 이 통계를 통해 볼 때, 전체 범죄자수에서 노인범죄자수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2007년 발생한 범죄자수는 모두 1,989,862명인데, 노인범죄자수는 84,028명으로서, 전체 범죄자의 4.2%를 차지한다. 그리고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범죄자 대비 노인범죄자의 비중을 따져보면 그 비중은 더욱 낮아져서 연평균 2.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범죄의 특징에서 서술하였듯이, 일반적으로 노인범죄는 다른 연령층보다 범죄발생률이 낮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전체 범죄에서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은 노인범죄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범죄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 1997년과 2007년 두 해의 전체 범죄자수와 노인범죄자수를 단순 비교해 볼 때, 전체 범죄자수는 1996년 1,922,549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1,989,862명으로 소폭 늘어났을 뿐이나, 노인범죄자수는 1996년 34,492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84,028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지난 1997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각 연도별 증가율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전체 범죄자수는 평균 9.9% 증가하였으나, 노인범죄자수는 1997년을 기준으로 평균 84.3% 증가하였다.⁴⁷⁾ 지난 10년 동안 노인범죄자수의 증가율

47) 여기에서는 각 연도의 범죄발생을 직전연도와 비교하는 것 대신에, 1997년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의 범죄발생 증가율을 계산하고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각 연도의 범죄발생율을 직전 연도와 비교하는 경우, 어떤 해는 직전 해와 비교해서 범죄발생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해는 직전 해보다 감소하기도 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범죄발생 증가율의 평균값을 구해 비교하였다.

평균은 전체범죄자수 증가율 평균의 8.5배에 달하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전체 범죄 발생빈도에서 노인범죄 발생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노인범죄 증가율은 전체 범죄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표 5> 연령대별 범죄자 발생 추이(단위: 명, %)

| 연도 | 전체범죄 | 61세이상 | 51-60세 | 41-50세 | 31-40세 | 21-30세 | 20세이하 |
|--------------------------|-----------|--------|---------|---------|---------|---------|---------|
| 1997 | 1,986,254 | 34,211 | 128,601 | 365,599 | 607,013 | 452,593 | 167,919 |
| 1998 | 2,196,565 | 41,847 | 154,631 | 444,248 | 668,735 | 465,324 | 168,296 |
| 1999 | 2,306,824 | 52,551 | 181,311 | 494,260 | 687,874 | 464,752 | 165,337 |
| 2000 | 2,241,635 | 54,371 | 177,698 | 492,029 | 641,816 | 448,542 | 168,335 |
| 2001 | 2,321,580 | 56,519 | 183,799 | 528,503 | 649,527 | 474,323 | 159,006 |
| 2002 | 2,297,030 | 57,527 | 181,110 | 540,556 | 616,969 | 473,192 | 142,854 |
| 2003 | 2,296,945 | 59,759 | 185,122 | 556,081 | 594,117 | 447,566 | 119,604 |
| 2004 | 2,284,095 | 66,943 | 206,016 | 597,211 | 593,478 | 427,876 | 90,263 |
| 2005 | 1,965,571 | 74,770 | 196,881 | 529,670 | 491,969 | 329,942 | 79,490 |
| 2006 | 1,932,729 | 82,323 | 212,343 | 513,821 | 460,643 | 305,805 | 80,124 |
| 2007 | 1,989,862 | 84,028 | 227,688 | 524,810 | 461,599 | 326,726 | 99,067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9.9% | 84.3% | 48.3% | 42.8% | -3.4% | -8% | -24.2%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8-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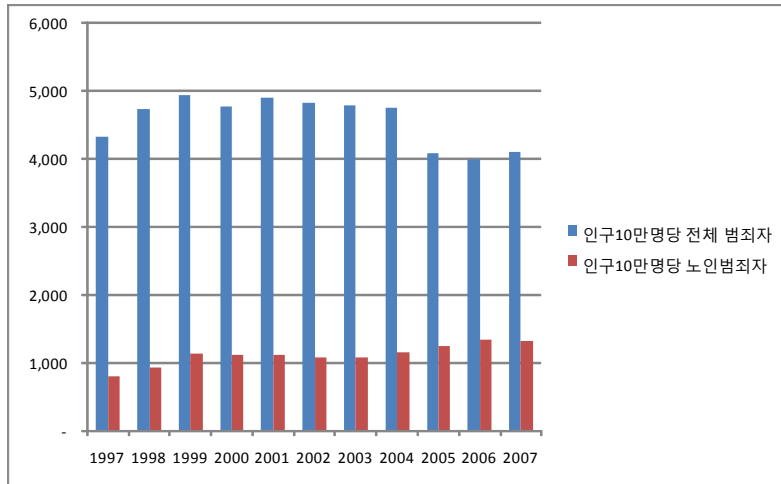
<표5>는 노인 범죄자 증가율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연령대별로 범죄자수 발생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각 연령대별로 1997년을 기준으로 한 범죄자수 증가율 평균을 계산해 보면, 60대 이상이 84.3%, 50대가 48.3%, 40대가 42.8%, 30대가 -3.4%, 20대가 -8%, 10대가 -24.2%대를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높은 연령대일수록

록 1997년 기준 범죄자수 증가율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10대 연령층에서는 범죄자수 증가율이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각 연령대별 범죄자수 증가율 평균을 통해서도 노인범죄의 증가추세는 확인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노인범죄의 증가추세를 단순히 범죄자수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연령별 인구변동, 특별히 노인인구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 증가추세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더욱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인범죄 추세 분석은 인구대비 범죄자수, 곧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 비교를 통해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위 <표4>에서는 전체범죄자수와 노인범죄자수와 함께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비교하였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7년에 전체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는 4,322명 정도였으며, 노인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는 810명 정도였다. 이러한 수치 비교를 통해서도 당시 노인연령층에서 범죄발생은 전체 연령층과 비교해서 낮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런데 범죄자수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는 1997년 4,322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4,10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노인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는 1997년 810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1,329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전체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선 반면, 노인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는 199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은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의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인구 10만명당 노인범죄자 추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는 1999년까지 증가세를 나타내어 1999년에는 거의 5,000명에 육박하다가 2004년까지 4,700~4,800명대를 감소하고, 2005년 이후에는 4,00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노인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는 전체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지만, 1997년 800명대를 보이다가, 2004년까지 1100명대를 보이고, 2006년 이후에는 1300명대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6>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발생 추이 (단위: 명)

| | 전체범죄 | | 60대 이상 | | 50대 | | 40대 | | 30대 | | 20대 | | 10대 이하 | |
|------|-----------|--------|--------|-------|---------|-------|---------|-------|---------|-------|---------|-------|---------|-------|
| | 범죄자 | 인구 대비* | 범죄자 | 인구 대비 | 범죄자 | 인구 대비 | 범죄자 | 인구 대비 | 범죄자 | 인구 대비 | 범죄자 | 인구 대비 | 범죄자 | 인구 대비 |
| 1997 | 1,986,254 | 4.322 | 34,211 | 810 | 128,601 | 3,125 | 365,599 | 6,135 | 607,013 | 7,120 | 452,593 | 5,324 | 167,919 | 1,177 |
| 1998 | 2,196,565 | 4.746 | 41,847 | 947 | 154,631 | 3,679 | 444,248 | 7,121 | 668,735 | 7,849 | 465,324 | 5,553 | 168,296 | 1,189 |
| 1999 | 2,306,824 | 4.948 | 52,551 | 1,137 | 181,311 | 4,230 | 494,260 | 7,516 | 687,874 | 8,086 | 464,752 | 5,619 | 165,337 | 1,183 |
| 2000 | 2,241,635 | 4.769 | 54,371 | 1,125 | 177,698 | 4,064 | 492,029 | 7,088 | 641,816 | 7,532 | 448,542 | 5,465 | 168,335 | 1,223 |
| 2001 | 2,321,580 | 4.902 | 56,519 | 1,122 | 183,799 | 4,145 | 528,503 | 7,229 | 649,527 | 7,589 | 474,323 | 5,822 | 159,006 | 1,180 |
| 2002 | 2,297,030 | 4.823 | 57,527 | 1,092 | 181,110 | 3,991 | 540,556 | 7,096 | 616,969 | 7,183 | 473,192 | 5,882 | 142,854 | 1,086 |
| 2003 | 2,296,945 | 4.799 | 59,759 | 1,086 | 185,122 | 3,962 | 556,081 | 7,044 | 594,117 | 6,908 | 447,566 | 5,639 | 119,604 | 930 |
| 2004 | 2,284,095 | 4.755 | 66,943 | 1,170 | 206,016 | 4,229 | 597,211 | 7,376 | 593,478 | 6,904 | 427,876 | 5,506 | 90,263 | 716 |
| 2005 | 1,965,571 | 4.083 | 74,770 | 1,263 | 196,881 | 3,832 | 529,670 | 6,452 | 491,969 | 5,765 | 329,942 | 4,349 | 79,490 | 642 |
| 2006 | 1,932,729 | 4.002 | 82,323 | 1,347 | 212,343 | 3,908 | 513,821 | 6,201 | 460,643 | 5,439 | 305,805 | 4,099 | 80,124 | 660 |
| 2007 | 1,989,862 | 4.107 | 84,028 | 1,329 | 227,688 | 3,981 | 524,810 | 6,297 | 461,599 | 5,507 | 326,726 | 4,458 | 99,067 | 830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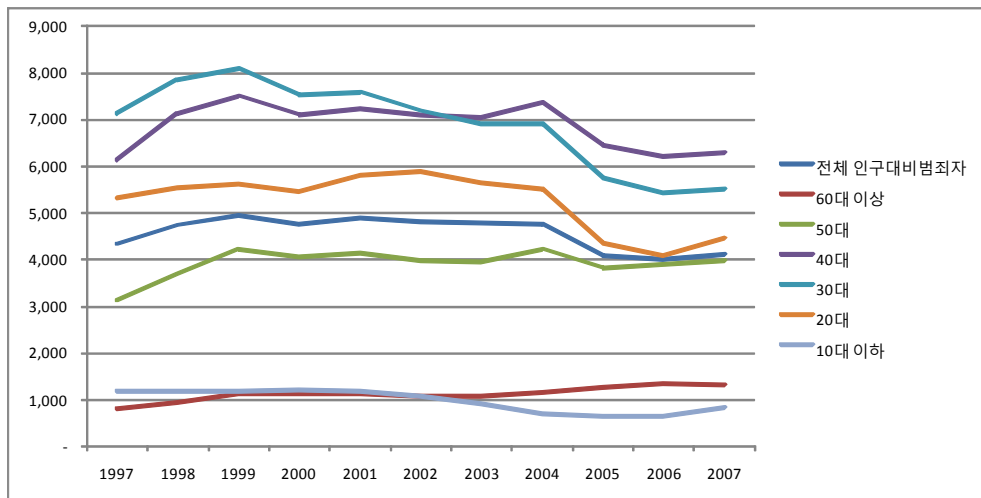
* 인구대비는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임.

주1) 60대 이상 범죄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라 61세 이상 범죄통계이며, 추계인구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60세 이상 통계자료임. 마찬가지로 50대 범죄통계자료는 51세~60세까지 통계자료이며, 추계인구자료는 50세~59세 통계자료임. 다른 연령대도 위와 같음.

위 <표6>은 각 연도별·연령대별로 범죄자수와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산출한 것이고, <그림 2>는 이 수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로 볼 때, 1997년에는 가장 범죄율이 낮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노인층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10대 이하, 50대,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범죄율이 높았다. 그런데 2002년에는 10대 이하와 60대 이상, 그리고 30대와 40대의 범죄율 순위가 각각 바뀌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가 낮은 연령층은 10대 이하, 60대

이상, 50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난다. 즉, 2002년 이후 60대 이상의 노인층은 10대 이하의 연령층보다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가 더욱 높은 연령층으로 등장했다.

<그림 2>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추이



제2절 노인 형법범죄 발생 추이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인범죄도 노인형법범과 노인특별법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각 범죄유형별로 노인형법 범죄자 발생 추이를 살핀다. 주요 노인형법범에는 사기를 비롯하여, 절도, 강간, 살인, 방화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노인형법범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범죄증가율에서 주목되는 8개 범죄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형법범죄 유형은 사기, 폭행, 상해, 도박, 절도, 강간, 살인, 방화 범죄 등이다.

<표 7> 주요 노인 형법범죄자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주요 노인 형법범죄 | | | | | | | | |
|--------------------------|------------|--------|--------|--------|-----------|--------|--------|--------|--------|
| | 전체 | 사기 | 폭행* | 상해 | 도박과 복표 | 절도 | 강간 | 살인 | 방화 |
| 1997 | 34,211 | 5,231 | 3,324 | 1,300 | 541 | 383 | 115 | 23 | 11 |
| 1998 | 41,847 | 6,452 | 4,156 | 1,702 | 667 | 478 | 105 | 31 | 19 |
| 1999 | 52,551 | 8,119 | 6,285 | 2,325 | 1,025 | 772 | 156 | 22 | 17 |
| 2000 | 54,371 | 6,894 | 7,571 | 2,547 | 1,407 | 866 | 129 | 32 | 24 |
| 2001 | 56,519 | 7,152 | 7,843 | 2,826 | 1,382 | 865 | 134 | 62 | 24 |
| 2002 | 57,527 | 6,791 | 7,259 | 2,659 | 1,380 | 1,125 | 230 | 43 | 30 |
| 2003 | 59,759 | 7,130 | 8,186 | 2,988 | 1,394 | 1,116 | 292 | 46 | 39 |
| 2004 | 66,943 | 9,591 | 8,049 | 2,941 | 1,635 | 1,349 | 254 | 50 | 33 |
| 2005 | 74,770 | 9,988 | 8,876 | 3,107 | 1,580 | 1,534 | 290 | 77 | 38 |
| 2006 | 82,323 | 11,090 | 6,504 | 5,079 | 1,149 | 1,929 | 423 | 59 | 46 |
| 2007 | 84,028 | 9,582 | 7,091 | 5,165 | 1,752 | 2,453 | 372 | 69 | 29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84.3% | 58.2% | 116.0% | 141.0% | 147.1% | 226.0% | 107.3% | 113.4% | 171.8%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8-20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포함.

주1) 노인범죄 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라 61세 이상 범죄 통계임.

위의 <표7>은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주요 노인형법범죄자 발생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노인 형법범죄 가운데 발생빈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사기 범죄이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 상해, 도박과 복표, 절도, 강간, 살인, 방화 범죄 순이다. 한편, 1997년 기준 범죄증가율 평균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절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방화, 도박과 복표, 상해, 폭행, 살인, 강간, 사기 순이다.

1. 사기

<표 8> 노인 사기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사기 | | 노인사기 | | | |
|-----------------|---------|--------------|--------|----------|-------------|----------------------|
| | 사기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범죄자* | 노인사기 | 노인사기 비율* | 인구10만명당 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노인사기범죄자 비율** |
| 1997 | 278,432 | 6,059 | 5,231 | 1.88 | 1,239 | 20.5 |
| 1998 | 325,490 | 7,032 | 6,452 | 1.98 | 1,460 | 20.8 |
| 1999 | 325,776 | 6,988 | 8,119 | 2.49 | 1,757 | 25.1 |
| 2000 | 250,761 | 5,334 | 6,894 | 2.75 | 1,427 | 26.7 |
| 2001 | 257,573 | 5,439 | 7,152 | 2.78 | 1,419 | 26.1 |
| 2002 | 277,732 | 5,832 | 6,791 | 2.45 | 1,290 | 22.1 |
| 2003 | 327,383 | 6,841 | 7,130 | 2.18 | 1,295 | 18.9 |
| 2004 | 329,566 | 6,860 | 9,591 | 2.91 | 1,676 | 24.4 |
| 2005 | 274,638 | 5,705 | 9,988 | 3.64 | 1,687 | 29.6 |
| 2006 | 276,344 | 5,722 | 11,090 | 4.01 | 1,814 | 31.7 |
| 2007 | 236,575 | 4,882 | 9,582 | 4.05 | 1,515 | 31.0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3.50% | | 58.20% | | |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8-2008;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 노인사기범죄자수/ 사기범죄자수*100

** 인구10만명당 노인사기범죄자수/ 인구10만명당 사기 범죄자수*100

주1) 노인범죄 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라 61세 이상 범죄 통계임. 이하 노인범죄 유형별 통계도 이와 같음.

주2) 인구10만명당 범죄자 산출에 이용한 인구자료는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임. 이하 노인범죄 유형별 통계도 이와 같음.

사기범죄는 노인형법범죄유형 가운데 범죄발생 빈도에서 가장 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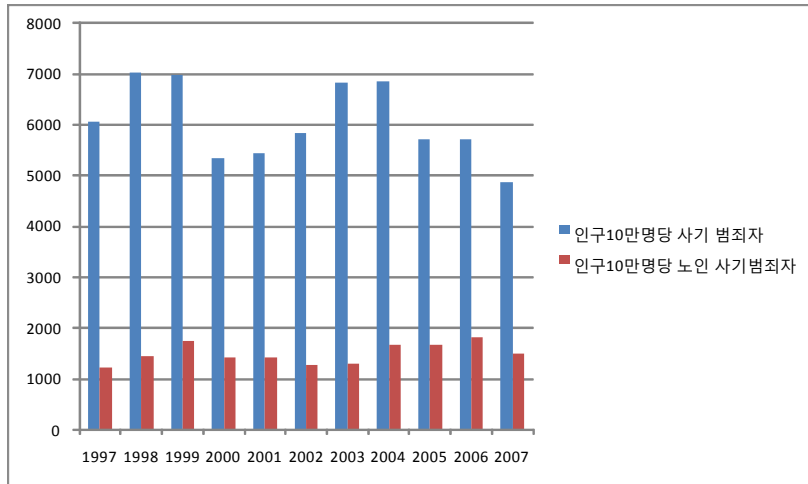
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이다. 전체 사기범죄의 추세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 이후 감소세와 증가세 그리고 다시 급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7년을 기준으로 사기범죄 증가율 평균은 3.5%에 그치고 있다. 반면, 노인 사기범죄 추세는 다소간의 증감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을 기준으로 노인 사기범죄 증가율 평균은 58.2%에 이른다. 노인 사기범죄의 증가율이 전체 사기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체 사기범죄에서 노인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낸다. 지난 1997년 노인 사기범죄가 전체 사기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8%였으나, 2007년에는 4.0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사기범죄에서 노인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전체 사기범죄자 수는 지난 1997년 6,059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4,882명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인구 10만명당 노인 사기범죄자수는 1997년 1,239명에서 2007년 1,515명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인구10만명당 노인사기범죄자 비율⁴⁸⁾을 보면, 노인사기범죄자의 증가세는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1997년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자수 대비 노인 사기범죄자수 비율은 20.5%로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31.0%로 크게 높아지는 추세이다.

48)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자수 대비 노인 사기범죄자수 백분율.

<그림 3> 인구 10만명당 노인 사기범죄자 추이



<그림3>는 인구 10만명당 노인 사기범죄자수의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추세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지난 2003년 이후 인구 10만명당 전체 사기범죄자수는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구 10만명당 노인 사기범죄자 수는 2003년부터 200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들어서 다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세적인 감소세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

<표 9> 주요 노인 여성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사기 | | | 폭행* | | | 절도 | | |
|------|--------|-------|------|-------|-------|------|-------|-----|------|
| | 전체 | 여성 | 비율 | 전체 | 여성 | 비율 | 전체 | 여성 | 비율 |
| 1997 | 5,231 | 1,153 | 22.0 | 3,324 | 718 | 21.6 | 383 | 99 | 25.8 |
| 1998 | 6,452 | 1,545 | 23.9 | 4,156 | 862 | 20.7 | 478 | 113 | 23.6 |
| 1999 | 8,119 | 1,982 | 24.4 | 6,285 | 1,360 | 21.6 | 772 | 197 | 25.5 |
| 2000 | 6,894 | 1,613 | 23.4 | 7,571 | 1,539 | 20.3 | 866 | 210 | 24.2 |
| 2001 | 7,152 | 1,590 | 22.2 | 7,843 | 1,494 | 19.0 | 865 | 220 | 25.4 |
| 2002 | 6,791 | 1,483 | 21.8 | 7,259 | 1,408 | 19.4 | 1,125 | 301 | 26.8 |
| 2003 | 7,130 | 1,733 | 24.3 | 8,186 | 1,580 | 19.3 | 1,116 | 315 | 28.2 |
| 2004 | 9,591 | 2,312 | 24.1 | 8,049 | 1,412 | 17.5 | 1,349 | 327 | 24.2 |
| 2005 | 9,988 | 2,300 | 23.0 | 8,875 | 1,501 | 16.9 | 1,534 | 396 | 25.8 |
| 2006 | 11,090 | 2,410 | 21.7 | 6,503 | 1,215 | 18.7 | 1,929 | 510 | 26.4 |
| 2007 | 9,582 | 2,257 | 23.6 | 7,091 | 1,330 | 18.8 | 2,453 | 679 | 27.7 |
| 평균 | | | 23.2 | | | 19.2 | | | 26.2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포함.

지난 10여년간의 노인범죄 발생추이에서 남성노인 범죄와 여성노인 범죄는 그 발생빈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제3장의 노인범죄의 특징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남성 노인범죄는 여성 노인범죄보다 발생빈도가 높다. 위의 <표 9>는 사기, 폭행, 절도 등 주요 노인 범죄에서 여성노인 범죄자의 발생빈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사기, 폭행, 절도 등 주요 노인범죄만을 놓고 볼 때, 전체에서 여성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26%에 이른다. 한편, 강영실(2005)은 노인범죄의 성별 분류 조사결과 남성노인이 약 83%, 여성노인이 약 17%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⁴⁹⁾ 노인범죄는 대부분 남성노인에 의한 범죄라는 것이다.

49) 강영실,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기관의 연계방안”, 『교정복지연구』 창간호, 2005, 158쪽, ‘<표1>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노인 사기범죄와 관련해서 볼 때,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노인 사기범죄자가 전체 노인 사기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3.2%이다. 여성노인 사기범죄는 여성노인 절도범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여성노인 범죄 유형이다. 여성노인 사기범죄의 추이를 볼 때,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여성 사기범죄자의 비율은 21~24% 범위 안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폭행

노인형법범죄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은 폭행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형법범 중의 폭행과 특별법상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모두 포함한다. 구현아·이웅혁(2007)은 노인의 폭행 범죄에는 가정폭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범죄 유형 가운데 폭력범죄가 많은 이유는 노년기의 스트레스와 좌절감, 분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⁵⁰⁾ 아노미 이론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은 배우자의 죽음, 건강의 악화, 빈곤, 사회적 지위의 상실, 역할의 상실,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인생의 목표와 실제 성취된 것 사이의 괴리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을 경험한다.⁵¹⁾ 이러한 스트레스와 다양한 형태의 긴장상태, 좌절감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비합법적이고 일탈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50) 구현아·이웅혁, 앞의 논문, 2007, 52쪽.

51) Akers 등(1988)은 전통적인 아노미 이론을 노인범죄이론으로서 적용할 때, 일반적인 아노미의 발생기제, 즉 '기대와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는 노인의 경우 '인생의 목표와 실제 성취된 것 사이의 불일치'로 수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0> 노인 폭행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 폭행* | | 노인 폭행 | | | |
|-----------------|---------|-------------|----------|---------------|------------|-------------------------|
| | 폭행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범죄자 | 노인 폭행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 | 노인폭행 비율(%) | 인구10만명당 노인폭행범죄자 비율(%)** |
| 1997 | 321,606 | 699.8 | 3,324 | 78.7 | 2.4 | 11.3 |
| 1998 | 350,555 | 757.4 | 4,156 | 94.0 | 2.3 | 12.4 |
| 1999 | 443,190 | 950.7 | 6,285 | 136.0 | 2.2 | 14.3 |
| 2000 | 485,459 | 1032.7 | 7,571 | 156.7 | 2.1 | 15.2 |
| 2001 | 475,053 | 1003.1 | 7,843 | 155.7 | 2.0 | 15.5 |
| 2002 | 405,380 | 851.2 | 7,259 | 137.8 | 1.9 | 16.2 |
| 2003 | 394,498 | 824.3 | 8,186 | 148.7 | 1.8 | 18.0 |
| 2004 | 327,528 | 681.8 | 8,049 | 140.7 | 1.7 | 20.6 |
| 2005 | 310,238 | 644.5 | 8,875 | 149.9 | 1.7 | 23.3 |
| 2006 | 191,839 | 397.2 | 6,503 | 106.4 | 1.6 | 26.8 |
| 2007 | 201,529 | 415.9 | 7,091 | 112.1 | 1.6 | 27.0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11.5 | | 116.1 | | | |

<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 1998-200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포함.

** 인구10만명당 노인폭행범죄자수/인구10만명당 폭행범죄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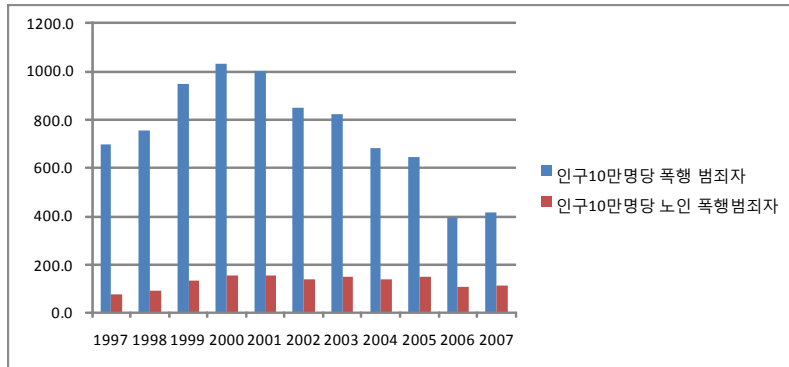
노인 폭행 범죄의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위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 이후 전체 폭행범죄의 발생추세는 200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을 기준으로 전체 폭행 범죄 증가율 평균은 11.5%에 그치고 있다. 노인 폭행 범죄 발생 추세를 보면,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야 감소 추세에 놓여 있다. 전체 폭행범죄 발생 추세는 지난 2001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에 있지만, 노인 폭행범죄는 오히려 2005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범죄발생빈도로 놓고 볼 때, 노인 폭행범죄 발생 추세는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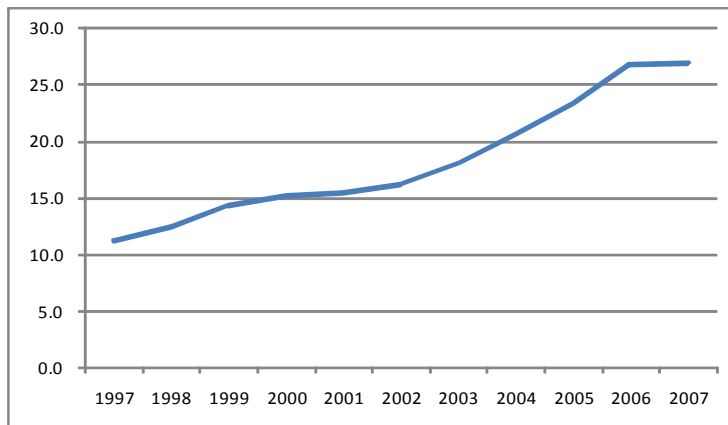
노인 폭행범죄 증가 추이를 보면, 1997년을 기준으로 노인 폭행범죄 증가율 평균은 116.1%에 이른다. 전체 폭행 범죄 증가율 평균이 11.5%인 것과 비교해서 볼 때, 노인 폭행 범죄의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구10만명당 노인폭행 범죄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폭행범죄자수의 추이와 비슷하다. 인구 10만명당 전체 폭행범죄자수는 1997년에 699.8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 1,032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서 2007년에는 415.9명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폭행범죄자 추세도 이와 비슷해서 인구 10만명당 노인폭행범죄자수는 1997년에 78.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56.7명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인구10만명당 폭행범죄자수 대비 노인폭행범죄자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7년 인구 10만명당 노인폭행범죄자수 비율은 11.3%였지만,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에는 27.0%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폭행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림3>은 인구 10만명당 노인폭행 범죄자 추이를 전체 폭행범죄자 추이와 비교한 것이고, <그림4>는 인구 10만명당 노인폭행범죄자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인구 10만명당 노인 폭행범죄자 추이



<그림 5> 인구 10만명당 노인 폭행범죄자 비율 추이*



* 인구대비(인구 10만명당) 노인폭행범죄자수/인구대비 폭행범죄자수*100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인구 10만명당 노인폭행범죄자 비율, 즉 인구10만명당 폭행범죄자수 대비 인구10 만명당 노인폭행범죄자수 비율은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노인 폭행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9>를 통해서 노인여성의 폭행범죄를 살펴보면, 사기나 절도

와 비교해서 폭행 범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폭행범죄에서 여성노인의 비율은 평균 19.2% 정도이다.

3. 상해

상해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노인형법범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다.

<표 11> 노인 상해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상해 | | 노인상해 | | | |
|-----------------|---------|-------------|---------|-----------|-----------------|--------------------|
| | 상해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범죄자 | 노인상해범죄자 | 노인상해범죄자비율 | 인구10만명당 노인상해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노인상해범죄자비율* |
| 1997 | 32,351 | 704.0 | 1,300 | 4.0 | 308.0 | 43.7 |
| 1998 | 36,565 | 790.0 | 1,702 | 4.6 | 385.1 | 48.8 |
| 1999 | 45,602 | 978.2 | 2,325 | 5.1 | 503.2 | 51.4 |
| 2000 | 46,837 | 996.4 | 2,547 | 5.4 | 527.2 | 52.9 |
| 2001 | 46,055 | 972.5 | 2,826 | 6.1 | 560.9 | 57.7 |
| 2002 | 41,325 | 867.8 | 2,659 | 6.4 | 504.9 | 58.2 |
| 2003 | 44,256 | 924.7 | 2,988 | 6.7 | 542.9 | 58.7 |
| 2004 | 37,674 | 784.2 | 2,941 | 7.8 | 514.0 | 65.5 |
| 2005 | 34,467 | 716.0 | 3,107 | 9.0 | 524.8 | 73.3 |
| 2006 | 91,688 | 1,898.4 | 5,079 | 5.5 | 830.8 | 43.8 |
| 2007 | 104,004 | 2,146.3 | 5,165 | 4.9 | 816.8 | 38.1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63.3 | | 141.0 | | |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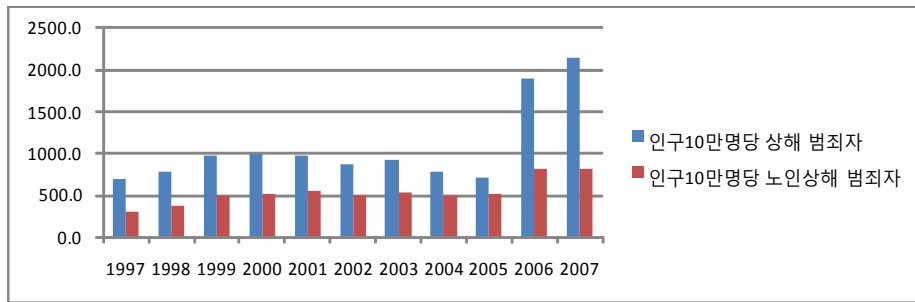
* 인구10만명당 노인상해범죄자수/인구10만명당 상해범죄자수*100

전체 상해범죄자의 추이를 보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3-4만명선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오다가 2006년 이후 급증하여 2007년에는 104,004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서 상해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상해범죄자의 수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7년 1,300명에 머물던 노인상해범죄자수는 2007년에는 5,165명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을 기준으로 전체 상해범죄자의 증가율 평균이 63.3%정도인 것과 비교해서 노인상해범죄자의 증가율 평균은 141.0%에 이른다.

상해범죄자 대비 노인 상해범죄자 백분율(노인상해범죄자비율)은 4~9%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상해범죄자 비율, 곧 인구10만명당 상해범죄자수 대비 노인 상해범죄자수 백분율은 40~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6> 인구10만명당 노인 상해범죄자 추이



<그림 6>는 인구대비 노인상해 범죄자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인구대비 상해범죄자 추이와 비교해서 노인상해 범죄자 추이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 도박

<표 12> 노인 도박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도박 | | 노인도박 | | | |
|-----------------|--------|---------------|---------|--------|-----------------|--------------------|
| | 도박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도박범죄자 | 노인도박범죄자 | 노인도박비율 | 인구10만명당 노인도박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노인도박범죄자비율* |
| 1997 | 34,258 | 74.5 | 544 | 1.59 | 12.8 | 17.3 |
| 1998 | 37,276 | 80.5 | 667 | 1.79 | 15.0 | 18.7 |
| 1999 | 46,799 | 100.3 | 1,025 | 2.19 | 22.1 | 22.1 |
| 2000 | 56,332 | 119.8 | 1,407 | 2.50 | 29.1 | 24.3 |
| 2001 | 54,695 | 115.4 | 1,382 | 2.53 | 27.4 | 23.7 |
| 2002 | 50,040 | 105.0 | 1,380 | 2.76 | 26.2 | 24.9 |
| 2003 | 36,497 | 76.2 | 1,394 | 3.82 | 25.3 | 33.2 |
| 2004 | 36,324 | 75.6 | 1,635 | 4.50 | 28.5 | 37.8 |
| 2005 | 29,733 | 61.7 | 1,580 | 5.31 | 26.6 | 43.2 |
| 2006 | 40,666 | 84.2 | 1,419 | 3.49 | 23.2 | 27.6 |
| 2007 | 32,229 | 66.5 | 1,752 | 5.44 | 27.7 | 41.7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22.7 | | 150.7 | | |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구10만명당 노인도박범죄자수/인구10만명당 도박범죄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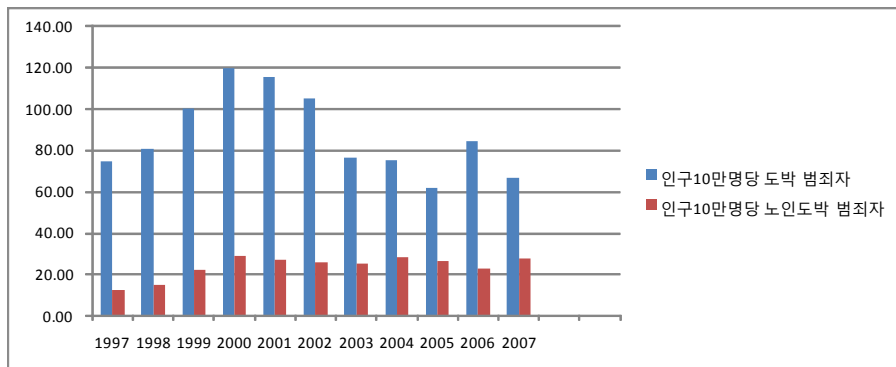
도박에 관한 범죄는 노인형법범죄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다. 1997년 이후 전체 도박범죄자 추이는 2000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범죄자 수만을 놓고 볼 때, 2007년 도박범죄자수는 1997년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노인도박 범죄자수는 199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1997년 544명이던 노인 도박범죄자수는 2007년에는 1,75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7년을 기준으로 전체 도박범죄자 증가율 평균이 22.7% 정도인 것과 비교해서 노인도박 범죄자는 150.7%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를 통해 볼 때에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전체 도박범죄자수는 1997년 74.5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119.8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에 인구 10만명당 노인 도박범죄자수는 1997년 12.8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27.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도박 범죄자수에서 노인도박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노인도박 범죄비율)을 보면, 1997년 1.59%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에는 5.44%로 높아졌다. 인구10만명당 노인도박 범죄자 비율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1997년 인구 10만명당 노인도박 범죄자 비율은 17.3%를 나타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높아져서 2007년에는 41.7%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율 수치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노인도박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7> 인구 10만명당 노인 도박범죄자 추이



5. 절도

노인절도 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노인 형법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범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범죄 유형이다. 노인절도 범죄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은 최근 노인들의 경제

적 빈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현아·이용혁(2007)은 노인들의 절도범죄는 은퇴나 실직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경제적 빈곤이 노인들의 박탈감을 증대시키고 범죄충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⁵²⁾ 일터에서 은퇴한 이후 자녀들로부터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자녀세대와 분리되어 독거하는 빈곤한 노인층에서 생계형 절도범죄가 잦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범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범죄의 재범율이 높다는 것인데, 절도범죄는 재범자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범죄형태이다.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처벌의 가중 정도가 낮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절도 범죄는 절도 전과자에 의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이는 절도의 습벽으로 재범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³⁾

52) 구현아·이용혁, 앞의 논문, 2007, 61쪽.

53) 구현아·이용혁, 위의 논문, 2007, 69쪽.

<표 13> 노인 절도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절도 | | 노인절도 | | | |
|-----------------|--------|-------------|---------|-----------------|-----------|------------------------|
| | 절도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범죄자 | 노인절도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노인절도범죄자 | 노인절도비율(%) | 인구10만명당 노인절도범죄자 비율(%)* |
| 1997 | 55,227 | 1201.8 | 383 | 90.74 | 0.69 | 7.6 |
| 1998 | 71,706 | 1549.2 | 478 | 108.16 | 0.67 | 7.0 |
| 1999 | 66,386 | 1424.1 | 772 | 167.08 | 1.16 | 11.7 |
| 2000 | 65,692 | 1397.5 | 866 | 179.24 | 1.32 | 12.8 |
| 2001 | 57,361 | 1211.2 | 865 | 171.68 | 1.51 | 14.2 |
| 2002 | 65,752 | 1380.7 | 1,125 | 213.64 | 1.71 | 15.5 |
| 2003 | 61,303 | 1280.9 | 1,116 | 202.75 | 1.82 | 15.8 |
| 2004 | 58,762 | 1223.2 | 1,349 | 235.75 | 2.30 | 19.3 |
| 2005 | 58,458 | 1214.4 | 1,534 | 259.10 | 2.62 | 21.3 |
| 2006 | 64,812 | 1341.9 | 1,929 | 315.55 | 2.98 | 23.5 |
| 2007 | 71,575 | 1477.1 | 2,453 | 387.93 | 3.43 | 26.3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16.20% | | 22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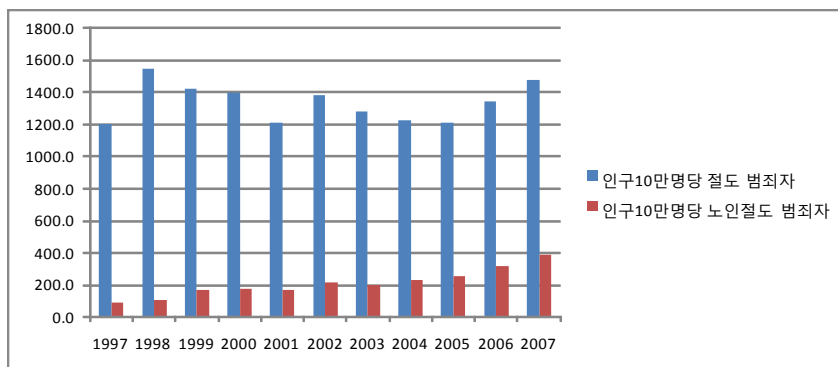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구10만명당 노인절도범죄자수/인구10만명당 절도범죄자수*100

<표 13>은 노인 절도 범죄자 발생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절도범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55,227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71,575명으로 증가하였는데, 1997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절도 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16.2% 정도이다. 이와 비교해서 노인절도 범죄자 발생 추이를 보면, 1997년에 발생한 노인절도범죄자는 모두 383명으로서, 전체 절도범죄자에서 노인절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채 1%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노인절도 범죄자는 해마다 급증해서 2007년에는 2,453명으로 나타났다. 1997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노인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226%에 이른다. 노인절도비율도 꾸준히 늘어나서 2007년에는 3.4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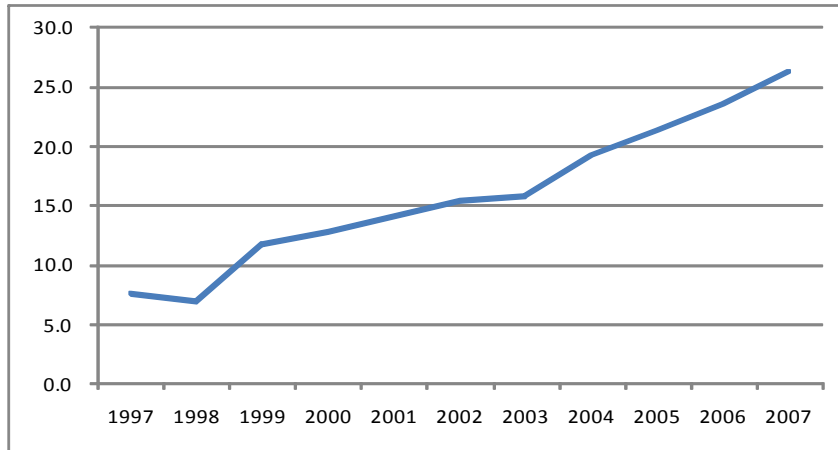
노인절도범죄의 증가 추세는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추이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1997년 인구 10만명당 노인절도범죄자는 90.7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387.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10만명당 노인절도범죄자수 비율은 1997년에는 7.6%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26.3%로 증가하였다. 노인절도 비율(즉, 절도범죄자수 대비 노인절도 범죄자수 비율)은 여전히 낮지만, 인구 10만명당 노인 절도범죄자 비율은 2007년 26.3%에 이르고 있다. 노인 절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8> 인구 10만명당 노인 절도범죄자 추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10만명당 노인절도 범죄자 비율은 높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그 증가율은 두드러진다. <그림 9>는 그 백분율이 지난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9> 인구10만명당 노인 절도범죄자 비율 추이



<표 9>를 통해 여성 노인절도 범죄자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절도 범죄에서 노인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인의 주요 범죄형태인 사기, 절도, 폭행범죄에서 절도범죄는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형태이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노인절도 범죄자에서 여성노인 절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6.2%인데, 이러한 높은 비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6. 강간

노인강간 범죄는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범죄형태이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남성노인들의 성기능도 70~80세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죽음이나 이혼 등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남성들의 성문제가 사회적 이

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구현아·이용혁(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성적 욕구를 채우지 못한 남성 노인들이 정신지체여성이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연구자들은 노인 남성의 성범죄가 아동이나 정신지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힘이 부족한 노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욕의 대상적(代償的)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⁵⁴⁾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의 암수범죄가 많다는 점에서 노인강간 범죄의 실태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성폭력 상담가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상담사례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그 개연성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4> 노인 강간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강간 | | 노인강간 | | | |
|-----------------|--------|---------------|---------|--------|-----------------|---------------------|
| | 강간범죄자 | 인구10만명당 강간범죄자 | 노인강간범죄자 | 노인강간비율 | 인구10만명당 노인강간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노인강간범죄자 비율* |
| 1997 | 5,612 | 12.21 | 115 | 2.05 | 2.72 | 22.3 |
| 1998 | 5,674 | 12.26 | 105 | 1.85 | 2.38 | 19.4 |
| 1999 | 6,277 | 13.47 | 156 | 2.49 | 3.38 | 25.1 |
| 2000 | 6,218 | 13.23 | 129 | 2.07 | 2.67 | 20.2 |
| 2001 | 5,692 | 12.02 | 134 | 2.35 | 2.66 | 22.1 |
| 2002 | 8,969 | 18.83 | 230 | 2.56 | 4.37 | 23.2 |
| 2003 | 9,815 | 20.51 | 292 | 2.98 | 5.31 | 25.9 |
| 2004 | 8,847 | 18.42 | 254 | 2.87 | 4.44 | 24.1 |
| 2005 | 8,664 | 18.00 | 290 | 3.35 | 4.90 | 27.2 |
| 2006 | 10,353 | 21.44 | 423 | 4.09 | 6.92 | 32.3 |
| 2007 | 9,632 | 19.88 | 372 | 3.86 | 5.88 | 29.6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43 | | 107.3 | | |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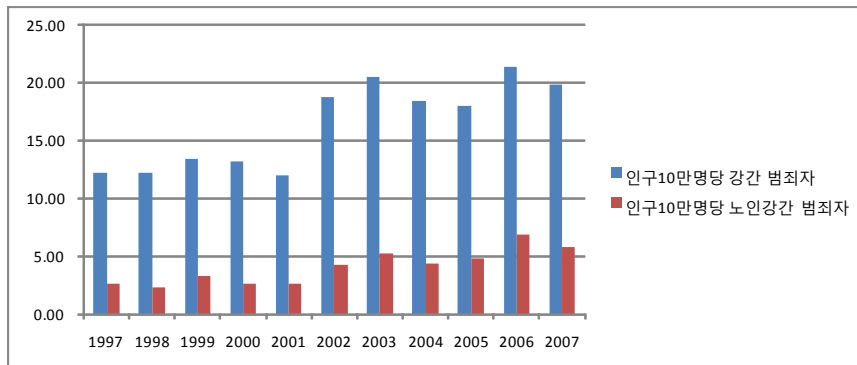
54) 구현아·이용혁, 앞의 논문, 2007, 64쪽.

* 인구10만명당 노인강간범죄자수/인구10만명당 강간범죄자수*100

<표 14>를 통해서 전체 강간범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지난 1997년 5,612명이었던 전체 강간범죄자는 2006년에는 10,35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와 비교해서 노인 강간범죄자는 1997년 115명에서 2007년 372명으로 증가하였다. (전 연령층)강간범죄자 대비 노인강간 범죄자 백분율은 2~4% 정도로 미미하다. 그렇지만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 인구 10만명당 강간범죄자수 대비 노인 강간범죄자수 백분율은 평균 25.3%를 차지한다.

노인강간 범죄자의 증가율은 (전 연령층)강간범죄자 증가율을 상회한다. 1997년을 기준으로 강간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43%이나 노인 강간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107.3%에 이른다. 인구10만명당 노인 강간범죄자 비율은 1997년 22.3%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에는 32.3%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10> 인구10만명당 노인 강간범죄자 추이



7. 살인

노인의 살인범죄는 일반 살인범죄와 마찬가지로 발생빈도가 낮은 범죄 유형에 속한다. 구현아·이용혁(2007)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 에 의한 살인사건 179건을 조사한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고하고 있는데⁵⁵⁾, 이 보고에 의하면, 노인 살인 범죄자들 중에서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이 사건들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89%를 차지했으며,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가 25%나 되었다. 범죄 발생장소는 대부분(74%)이 집이었으며, 사례의 81%가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외국의 연구 사례는 노인 살인범죄의 대상이 가족이나 친지 혹은 가까운 이웃 사람이기 쉬우며,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 범죄가 순간적인 분노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사회유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으로 설명 가능하다. 노인 남성은 은퇴 후 사회로부터 유리됨에 따라 스스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감정을 갖는데, 배우자나 가족 등과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폭력성은 정신적 질병이나 정신적 능력의 저하에 따른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Newman과 Gerwirtz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적 혼란이 발생하는 데 따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별히 개인의 폭력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이라고 주장한다.⁵⁶⁾

55) 구현아·이용혁, 앞의 논문, 59-60쪽.

56) 구현아·이용혁, 위의 논문, 59쪽 재인용.

<표 15> 노인 살인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살인 | | 노인살인 | | | |
|--------------------|-------|---------------|---------|--------|-----------------|--------------------|
| | 살인범죄자 | 인구10만명당 살인범죄자 | 노인살인범죄자 | 노인살인비율 | 인구10만명당 노인살인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노인살인범죄자비율* |
| 1997 | 886 | 1.93 | 23 | 2.60 | 0.54 | 28.3 |
| 1998 | 1,014 | 2.19 | 31 | 3.06 | 0.70 | 32.0 |
| 1999 | 1080 | 2.32 | 22 | 2.04 | 0.48 | 20.6 |
| 2000 | 990 | 2.11 | 32 | 3.23 | 0.66 | 31.4 |
| 2001 | 1,109 | 2.34 | 62 | 5.59 | 1.23 | 52.5 |
| 2002 | 1,031 | 2.16 | 43 | 4.17 | 0.82 | 37.7 |
| 2003 | 1,021 | 2.13 | 46 | 4.51 | 0.84 | 39.2 |
| 2004 | 974 | 2.03 | 50 | 5.13 | 0.87 | 43.1 |
| 2005 | 980 | 2.04 | 77 | 7.86 | 1.30 | 63.9 |
| 2006 | 959 | 1.99 | 59 | 6.15 | 0.97 | 48.6 |
| 2007 | 968 | 2.00 | 69 | 7.13 | 1.09 | 54.6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14.2 | | 113.5 | | |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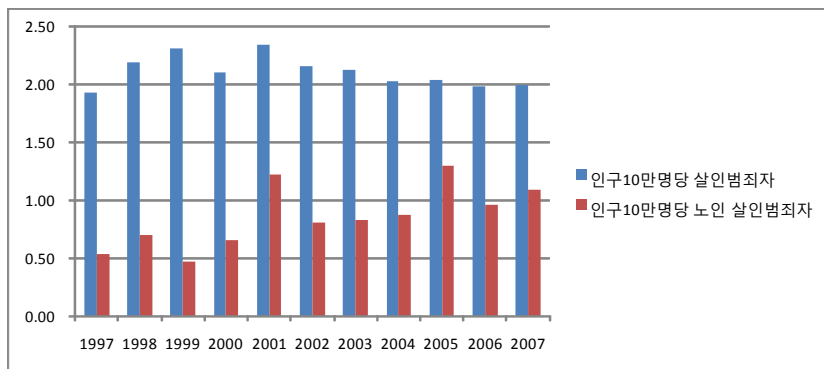
* 인구10만명당 노인살인범죄자수/인구10만명당 살인범죄자수*100

<표 15>는 연도별로 노인 살인 범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살인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살인범죄자는 886명이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07년에 살인범죄자는 968명으로 소폭 증가한 상태에 있다. 이와 비교해서 노인 살인범죄자는 1997년 23명이던 것이 2007년 69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자는 1~2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노인 살인범죄자는 1명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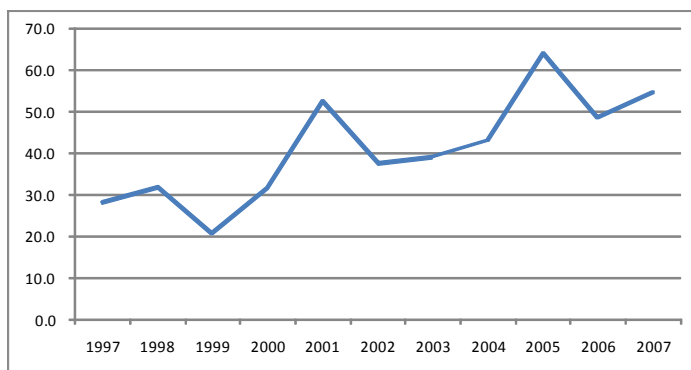
그런데 살인범죄의 증가추이를 비교해 보면, 1997년을 기준으로 전체 살인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14.2%인데 비해서 노인살인 범죄자의 증가율 평균은 113.5%로 나타난다. 노인살인 범죄자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살인 범죄자수 대비 노인 살인범죄자수 백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백분율은 지난 1997년에는 2.6% 정도였으나, 2007년에는 7.13%로 높아졌다. 인구10만명당 노인살인범죄자 비율을 추이를 보면 노인 살인범죄 추세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1997년 노인 살인범죄자 비율은 28.3%였으나, 2007년에는 54.6%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노인 살인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1> 인구10만명당 노인 살인범죄자 추이



<그림 12> 인구 10만명당 노인 살인범죄자 비율 추이



8. 방화

<표 16> 노인 방화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방화 | | 노인방화 | | | |
|-----------------|-------|---------------|---------|--------|-----------------|---------------------|
| | 방화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방화범죄자 | 노인방화범죄자 | 노인방화비율 | 인구10만명당 노인방화범죄자 | 인구10만명당 노인방화범죄자 비율* |
| 1997 | 731 | 1.59 | 11 | 1.50 | 0.26 | 16.4 |
| 1998 | 949 | 2.05 | 19 | 2.00 | 0.43 | 21.0 |
| 1999 | 1,007 | 2.16 | 17 | 1.69 | 0.37 | 17.0 |
| 2000 | 1,048 | 2.23 | 24 | 2.29 | 0.50 | 22.3 |
| 2001 | 1,211 | 2.56 | 24 | 1.98 | 0.48 | 18.6 |
| 2002 | 1,121 | 2.35 | 30 | 2.68 | 0.57 | 24.2 |
| 2003 | 1,426 | 2.98 | 39 | 2.73 | 0.71 | 23.8 |
| 2004 | 1,056 | 2.20 | 33 | 3.13 | 0.58 | 26.2 |
| 2005 | 1,058 | 2.20 | 38 | 3.59 | 0.64 | 29.2 |
| 2006 | 1,049 | 2.17 | 46 | 4.39 | 0.75 | 34.6 |
| 2007 | 998 | 2.06 | 29 | 2.91 | 0.46 | 22.3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49.4 | | 171.8 | | |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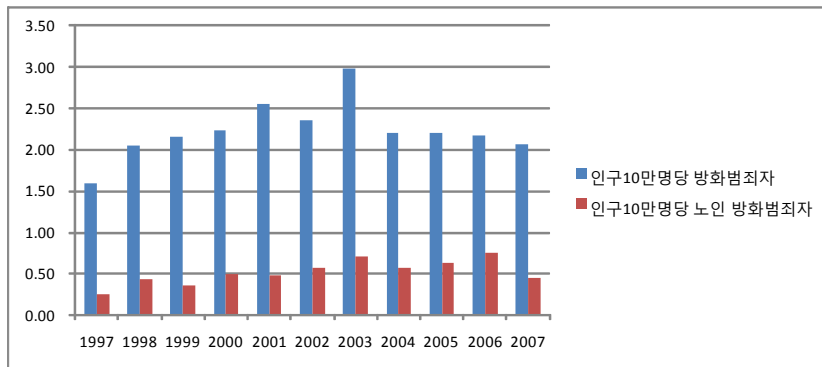
* * 인구10만명당 노인방화범죄자수/인구10만명당 방화범죄자수*100

<표 16>은 노인방화 범죄 발생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방화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방화범죄자는 1997년 731명이던 것이 2003년에는 1,426명으로 증가했다가 2007년에는 998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노인 방화범죄자는 1997년 11명이 발생했는데, 2006년에는 46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노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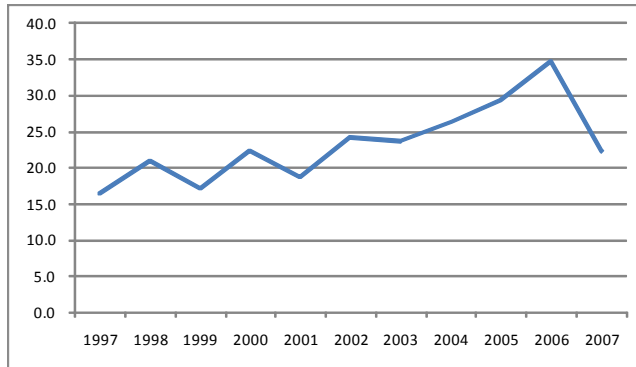
화비율(즉, 방화범죄자수 대비 노인 방화범죄자수 백분율)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방화범죄자수로 살펴보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 인구10만명당 방화범죄자 대비 노인 방화범죄자 백분율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 평균 23.4%에 이른다.

노인 방화범죄자 수는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1997년 기준으로 2007년까지 전체 방화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49.4%인데 비해서 노인방화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171.8%에 이른다. 1997년 인구10만명당 노인 방화범죄자 비율은 16.4%였으나, 2006년에는 34.6%를 나타냈다가 2007년에는 22.3%로 낮아졌다. 최근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노인 방화범죄자의 증가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아래 <그림 13>은 인구 10만명당 노인방화범죄자 추이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14>는 인구10만명당 노인방화범죄자 비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 인구 10만명당 노인 방화범죄자 추이



<그림 14> 인구10만명당 노인 방화범죄자 비율 추이



제3절 노인 특별법범죄 발생 추세

특별법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인범죄는 자동차 운전 또는 사고와 관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케 한 범죄이다.

<표 17>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발생 추이 (단위: 명, %)

| 연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
| | 위반자 | 인구10만 명당 위반자 | 노인 위반자 | 인구10만명 당노인 위반자 | 노인범죄 비율(%) | 인구10만명당 노인 위반자 비율(%)* |
| 1997 | 226,299 | 492.5 | 3,535 | 83.7 | 1.6 | 17.0 |
| 1998 | 214,247 | 462.9 | 4,115 | 93.1 | 1.9 | 20.1 |
| 1999 | 244,502 | 524.5 | 5,584 | 120.9 | 2.3 | 23.0 |
| 2000 | 264,655 | 563.0 | 6,974 | 144.3 | 2.6 | 25.6 |
| 2001 | 243,056 | 513.2 | 7,020 | 139.3 | 2.9 | 27.1 |
| 2002 | 217,797 | 457.3 | 7,469 | 141.8 | 3.4 | 31.0 |
| 2003 | 217,997 | 455.5 | 8,612 | 156.5 | 4.0 | 34.4 |
| 2004 | 210,598 | 438.4 | 10,202 | 178.3 | 4.8 | 40.7 |
| 2005 | 191,022 | 396.8 | 11,731 | 198.1 | 6.1 | 49.9 |
| 2006 | 190,832 | 395.1 | 13,023 | 213.0 | 6.8 | 53.9 |
| 2007 | 183,672 | 379.0 | 14,340 | 226.8 | 7.8 | 59.8 |
| 1997년 기준 증가율 평균 | -3.7 | | 151.9 | | | 3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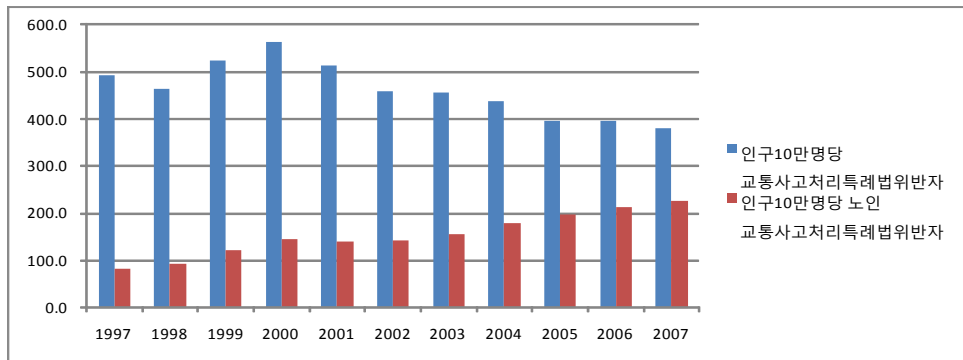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1998-200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구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수/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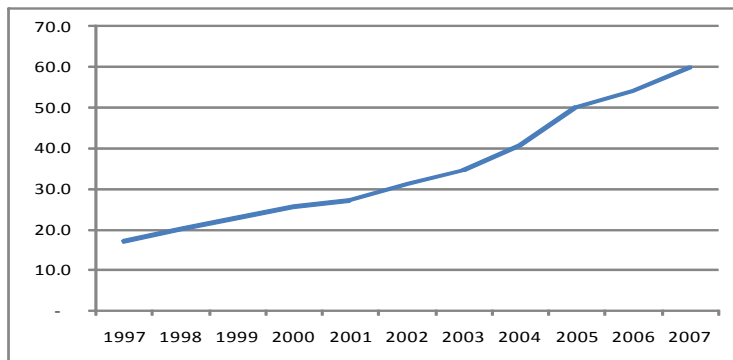
1997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97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증가율 평균은 -3.7%를 나타낸다. 반면에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증가율 평균은 1997년을 기준으로 151.9% 증가하였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1997년 492명이었다가 2007년에는 379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1997년 83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비율은 1997년 17% 정도였으나 2007년에는 59.8%로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 비율 평균 33.4%에 이른다. 아래 <그림 15>는 인구대비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추이와 인구10만명당 노인위반자 비율추이(<그림 16>)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 인구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추이



<그림 16> 인구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비율 추이



위 <그림 15>을 통해 보면, 인구 10만명당 전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역력한 반면, 인구 10만

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림 16>에서 보듯이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비율은 1997년 17% 수준에서 2007년 59.8% 수준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전 연령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의 59.8%에 이른다는 것이다. 노인 위반자가 전 연령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증가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노인들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노인 운전자의 신체적 노화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7년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에서 2004년 경찰 통계를 기초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사고책임자로 확인된 사망 사고 417건과 25세 이하 젊은 운전자가 사고 책임자로 확인된 사망사고 832건을 대상으로 사고 특성을 조사한 결과⁵⁷⁾ 고령운전자들은 정지상태에서 좌회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젊은층보다 길고 사고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위험 시각에 대한 반응시각 지연 등의 노화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은 보행자의 통행규칙, 운전자의 도로통행 규칙, 안전 운전 규칙 등을 위반한 범죄이다.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측정거부 위반 통계는 별도로 작성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통계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측정거부 위반 등이 제외된 통계이다.

57) 이데일리, 2007.6.6.

58) 그 예로서 고령층이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좌회전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79초로서, 젊은 운전자가 소요된 시간 10.81초보다 5초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신문, 2007년 6월 7일자. “고령운전자, 주간·좌회전 사고 많아

<표 18>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 발생 추이 (단위: 명, %)

| | 도로교통법 위반 | |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 | | | |
|-----------------|----------|-------------|-------------|---------------|-------------|----------------------|
| | 위반자 | 인구10만명당 위반자 | 노인위반자 | 인구10만명당 노인위반자 | 노인위반자 비율(%) | 인구10만명당 노인위반자 비율(%)* |
| 2000 | 111,721 | 237.7 | 2,140 | 44.2 | 1.9 | 18.6 |
| 2001 | 74,527 | 157.4 | 1,475 | 29.2 | 2.0 | 18.6 |
| 2002 | 48,252 | 101.3 | 1,039 | 19.7 | 2.2 | 19.5 |
| 2003 | 44,215 | 92.4 | 925 | 16.8 | 2.1 | 18.2 |
| 2004 | 37,687 | 78.5 | 1,116 | 19.5 | 3.0 | 24.9 |
| 2005 | 32,329 | 67.2 | 6,314 | 106.6 | 19.5 | 158.8 |
| 2006 | 27,150 | 56.2 | 7,477 | 122.3 | 27.5 | 217.6 |
| 2007 | 24,824 | 51.2 | 7,164 | 113.2 | 28.9 | 221.1 |
| 2000년 기준 증가율 평균 | -63.0% | | 70.3% | | |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1-2008);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 인구10만명당 노인 도로교통법위반자수/인구10만명당 도로교통법위반자수*100

주1) 도로교통법 위반 가운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은 2000년부터 별도로 집계되고 있음.

주2)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검찰처분이 끝난 피의자 수임.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더욱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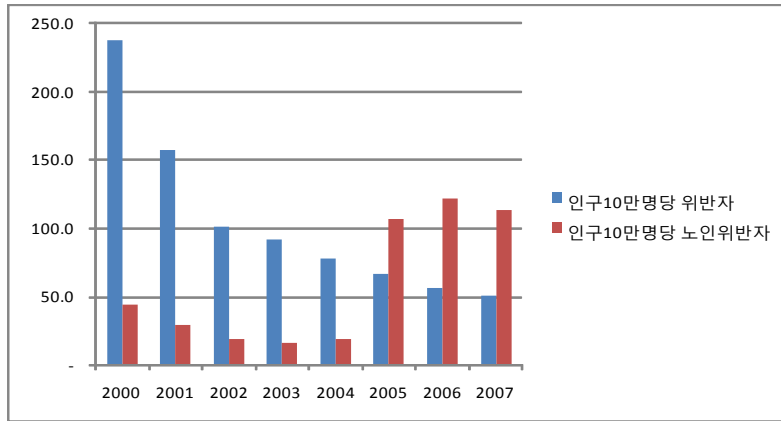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111,721명의 위반자가 발생했으나,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2000년 기준 도로교통법 위반 증가율 평균은 -63%에 이른다. 이와 비교해서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은 2000년 2,140명

이던 것이 2003년에는 925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는 7,164명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2000년 기준 노인도로교통법 위반자 증가율 평균은 70.3%이다. 전체(즉, 전 연령층)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은 한 때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추세이다.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연령을 보다 60대와 70대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70대 위반자가 많다. 최근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급증은 70대 노인층의 위반빈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인구10만명당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살펴보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2000년 인구10만명당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237.7명이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51.2명으로 낮아졌다. 이와 비교해서 인구10만명당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2000년 44.2명에서 2007년 113.2명으로 높아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10만명당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 비율을 산출해 보면, 2000년에는 18.6%를 나타냈는데, 2007년에는 221.1%로 급증했다. 2007년의 경우 인구10만명당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인구10만명당 도로교통법 위반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발생한 셈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일하게 노인층이 전 연령층보다 범죄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다. 도로통행 규칙에 밝지 못한 노인층의 도로 통행 습관에서 무단도로횡단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7> 인구10만명당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 추이



제4절 노인범죄의 일반적 추세: 소결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전체 범죄 발생빈도에서 노인범죄 발생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노인 연령층의 범죄율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이것은 노인범죄의 특징으로 꼽힌다.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즉, 전 연령층)와 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수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수는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보다 작다.

최근 2007년도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 대비 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수 백분율(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 살인범죄의 경우, 인구10만명당 살인 범죄자수 대비 54.6%로서 가장 높다. 다른 노인 범죄유형을 보면, 노인 도박범죄는 41.0%, 노인 상해범죄는 38%, 노인 강간범죄는 32.3%, 노인 사기범죄는 31.0%, 노인 폭행범죄는 27.0%, 절도범죄는 26.3%, 방화범죄는 22.3% 정도이다. 즉, 최근 2007년도 인

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는 전체(즉, 전 연령층) 범죄자수 대비 22%~55% 정도 발생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범죄 발생빈도는 전 연령층 평균에 못 미치지만, 노인범죄증가율은 전 연령층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인범죄는 전 연령층 평균과 비교해서 발생빈도는 아직 낮지만, 증가율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범죄는 심각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노인범죄 증가율 추세를 살피기 위해서,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였다. 그 하나는 전체(즉, 전 연령층)범죄자수 대비 노인범죄자수 백분율(노인범죄자 비율)을 산출해서 그 추이를 살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10만명당 전체 범죄자수 대비 인구10만명당 노인 범죄자수 백분율(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 비율)을 산출하여 그 추이를 살핀 것이다.

2002년 이전까지 60대 이상 연령층은 각 연령층별로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가 가장 낮은 연령층이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60대 이상의 노인층은 10대 이하의 연령층보다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가 더욱 높은 연령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 현재 인구10만명당 범죄자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이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20대, 50대, 60대, 10대 이하이다.

노인 형법범죄 가운데 단순 범죄발생빈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사기 범죄이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 상해, 도박과 복표, 절도, 강간, 살인, 방화 범죄 순이다. 한편, 1997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범죄증가율 평균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절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방화, 도박과 복표, 상해, 폭행, 살인, 강간, 사기 순이다.

1. 형법범죄

가. 사기범죄>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자 수는 1997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노인 사기범죄자수는 높아지는 추세이다.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자수 대비 노인사기범죄자수 백분율은 1997년 20.5%에서 2007년에는 31.0%로 크게 높아지는 추세이다.

나. 폭행범죄

1997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전 연령층 폭행범죄 증가율 평균은 11.5%인 것과 비교해서 노인 폭행범죄 증가율 평균은 116.1%에 이른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폭행범죄자수 대비 인구10만명당 노인폭행범죄자수 백분율은 1997년에 11.3%에서 2007년에는 27.0%로 높아지고 있다.

다. 도박범죄

인구 10만명당 도박범죄자수는 1997년 74.5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119.8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인구 10만명당 노인 도박범죄자수는 1997년 12.8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27.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 인구 10만명당 도박범죄자수 대비 노인도박범죄자수 백분율은 17.3%를 나타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져서 2007년에는 41.7%를 나타내고 있다.

라. 절도범죄

노인절도 범죄자는 해마다 급증해서 1997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노인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226%에 이른다. 노인절도범죄의 증가 추세는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추이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1997년 인구 10만명당 노인절도범죄자는 90.7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387.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10만명당 절도범죄자 대비 노인절도범죄자 백분율은

1997년에 7.6%에서 2007년에는 26.3%로 높아졌다.

마. 강간범죄

1997년을 기준으로 강간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43%이나 노인 강간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107.3%를 나타낸다. 인구 10만명당 강간범죄자 대비 노인 강간범죄자 백분율은 1997년 22.3%이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상승추세를 나타내서 2006년에는 32.3%까지 높아졌다.

사. 살인범죄

살인 범죄자수 대비 노인 살인범죄자 백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자수 대비 노인 살인범죄자수 백분율은 1997년 28.3%였으나, 2007년에는 54.6%로서 두 배 정도 높아졌다.

아. 방화범죄

1997년 기준으로 2007년까지 전체 방화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49.4%인데 비해서 노인 방화범죄자 증가율 평균은 171.8%에 이른다. 인구10만명당 방화범죄자수 대비 노인 방화범죄자수 백분율은 1997년에는 16.4%였으나 2006년에는 34.6%로 높아졌다가 2007년에는 22.3%로 낮아졌다. 최근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노인 방화범죄자의 증가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2. 특별법범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인구 10만명당 전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역력한 반면,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 대비 인구10만명당 노인 위반자 백분율은 1997년 17% 수준

에서 2007년 59.8% 수준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노인 위반자가 전 연령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증가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급증추세에 있다. 지난 2000년 인구10만명당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237.7명이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51.2명으로 낮아진 반면, 인구10만명당 노인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2000년 44.2명에서 2007년 113.2명으로 높아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일하게 노인층이 전 연령층보다 범죄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다.

이 장에서는 노인 범죄 발생추이와 범죄 증가율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인구10만명당 노인범죄자 발생추이를 범죄자 발생 추이와 비교하고, 인구10만명당 범죄자 대비 노인범죄자 비율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노인형법범죄 가운데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인구10만명당 범죄자 대비 노인범죄자 비율 증가폭이 큰 범죄유형은 살인(1997년 28.3% → 2007년 54.6%), 도박(1997년 17.3% → 2007년 41.7%), 폭행(1997년 11.3% → 2007년 27.0%), 절도(1997년 7.6% → 2007년 26.3%), 범죄 등을 들 수 있으며, 특별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2000년 18.6% → 2007년 221.1%)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범죄 유형들은 최근 10년 사이 상대적으로 범죄 증가율이 높은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은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5장 노인범죄 대책

제1절 정부 차원에서의 노인복지 대책 수립

노인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에 관한 논의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노인범죄의 발생은 우리 사회 구조적인 변화, 즉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의 역할 축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 해체와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급증 등 사회구조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 추세와 함께 노인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의 문제가 발생한다. 노인문제, 더 나아가서 노인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할 때, 노인 범죄에 대한 대책은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의 발생이 구조적인 데 있다면, 문제의 해결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인 데에서 기인한다면 그 대책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어야 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보다는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정부의 노인복지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노인 복지대책의 수립이다. 오늘날 노인문제의 뿌리에는 노인의 빈곤문제가 있다. 한동효(200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범죄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노인부양지수와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노인 형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히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형법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노인 형법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가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에 이뤄진 이현희 외(2003)의 연구결과도 일치한다. 노인범죄는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노인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대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할 상실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좌절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때에는 노인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킨다는 취지에서 사회 참여형 일자리 창출이 강조된 바 있다. 사회 참여형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장 참여형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지원이 요구된다.

제2절 경찰의 노인범죄 대책

노인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자들의 제안과 예방대책들은 대체로 사회복지적 차원의 대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범죄의 경우, 범죄 발생의 동기와 사회적 배경이 사회복지적 요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범죄예방 활동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이 요구된다. 이 절에서는 경찰의 노인범죄 예방대책을 제안해 본다.

제4장의 노인범죄 실태 분석에서는 노인 형법범죄 유형 가운데, 폭행, 살인, 절도, 도박 범죄 등의 범죄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밝혔다. 노인범죄 예방 대책은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1. 노인 폭력범죄 대책

가. 노인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한 예방활동

폭행,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상대적으로 힘이 대등하거나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폭행이나 살인은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쉽다.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서, 여성이나 노인, 혹은 아동이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쉽다. 구현아·이용혁(2007)은 노인 폭력범죄의 상당수가 음주 이후에 친구집안에 일어나는 것이거나 가정폭력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⁵⁹⁾ 이러한 노인 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력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은 노인들 사이에 음주와 놀이가 이뤄지는 공간들로서, 공원 주변, 경노당 등을 중심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지역의 공원 주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지역으로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은 공원이나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 활동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전담경찰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거나 분쟁의 소재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노인 자원봉사자를 통해 구성된 ‘실버폴리스’를 통해 이뤄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노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실버폴리스’를 활용할 경우, 경찰 차원에서는 경찰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역할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폭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시비나 갈등상황을 동년배 실버폴리스의 개입을 통해 풀어가거나 문제의 소재가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59) 구현아·이용혁, 앞의 논문, 96쪽.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가정폭력 사후 관리를 통한 폭력범죄 예방

노인 폭행범죄와 노인 살인범죄 등의 강력범죄는 가정폭력과 상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노인 폭행범죄의 대다수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형태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외국의 살인범죄 사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노인 살인범죄의 대다수가 가족과 친지, 이웃 등 지인을 상대로 한 것이며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폭행범죄와 살인범죄가 가정폭력의 한 형태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일어난 노인 폭행범죄와 살인범죄 사례 분석이 요구된다. 공식통계자료에 기초한 범죄발생추세 분석과 함께 범죄 유형별 사례분석의 연구 성과들이 축적된다면, 향후 더욱 적확하고 예측력이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추정대로 노인 폭행범죄와 살인범죄의 다수가 가정폭력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한 방향은 가정폭력 예방 대책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 수립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노인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노인 폭행범죄와 살인범죄는 가정폭력과 상관성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노미이론과 사회유리이론의 설명에 따르면, 일터에서 은퇴한 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이 아노미적 상태에 빠지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긴장과 좌절감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분노로 표출되어 폭행과 살인 등의 강력범죄

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가정폭력은 일상화되기 쉬우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노인의 가정폭력이 폭행과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노인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가해 노인의 전과기록, 가정폭력 유발 요인, 알콜이나 약물 중독 여부 등에 대한 사실에 기초하여 정기적인 순찰 방문이나 상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대상자들이 갈등 상황을 빚는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가정 내의 갈등 상황을 제거하거나 중재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2. 노인 절도 범죄 대책

선행 연구에 의하면, 노인범죄는 재범율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 범죄유형별로 볼 때, 절도범죄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인범죄가 재범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내의 전담경찰관은 전과 경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관리와 정보 수집 활동을 상시적으로 행하고 그들에게 범죄 유발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절도 범죄 경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범죄 유발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범죄 유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경찰활동이 요구된다. 여기에서의 경찰 활동은 직접적으로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과의 매개자 역할도 포함한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독거노인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경찰관이나 ‘1노(老) 1경(警)’ 제도 하에서의 담당 경찰관이 범죄예방 활동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며, 경찰의 역할 밖의 사회복지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단체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즉, 경찰은 노인범죄가 우려되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 노인들의 절도 범죄 유발 요인을 직접적으로 제거 혹은 완화하는 활동을 벌이거나 지역사회 전문가들이나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3. 관련 대책 제언

가. 노인범죄 예방 전담팀 구성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의 빈곤,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립감과 소외, 좌절감 등 노인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노인범죄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범죄 동기와 노인범죄자 특성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범죄분석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각 경찰서 단위로 편성하고, 상습 노인범죄자 관리, 우범지역 순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대책 수립, 노인범죄피해 상담, 지역내 경노당이나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인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나. 노인 자원봉사자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지원

스쿨폴리스의 개념을 노인범죄 현장에 도입하여, 현역에서 은퇴한 전직 경찰이나 전직 교사 등을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실버폴리스 자원봉사

자로서 모집하고, 지역사회내의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시설, 공원 주변 등 노인밀집지역, 기타 노인범죄 피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경찰이나 교직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하여금 같은 또래의 노인들을 상담하는 상담자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실버폴리스로서 활동하는 당사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노인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경험하는 노인들을 같은 처지에 있는 은퇴 노인들이 상담자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써 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담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다. 노인범죄 통계 산출의 필요

경찰청의 범죄통계를 근거로 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외에 청소년범죄, 여성범죄, 마약사범 등에 관한 별도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노인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반 성인에 포함시켜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노인범죄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범행시 연령 통계에 기초하여 노인범죄 추이를 분석할 수 있을 뿐이다. 노인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노인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인범죄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 관련 통계자료는 각 기관별로 연령기준이 상이하여 통계 분석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기초한 대검찰청 통계자료는 61세와 71세를 기준으로, 법무부 교정국의 수형자 통계와 법무연수원 범죄백서는 60세를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적용기준으로나 최근 노인 관련 연구에서는 65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삼는 추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5세 전후의 통계자료는 산출하기 어려워 노인범죄 예방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65세를 기준으로 한 노인범죄 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

라. 노인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노인범죄를 다루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노인이 강력범죄를 범하는 범죄자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범죄 피해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노인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독거노인 보호나, 최근 각 경찰서 단위에서 노인정마다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노인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1노(老)1경(警)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노인이 범죄의 피해자로서 존재하는 한편에는 강력범죄 가해자로서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노인들이 노인범죄의 가해자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인범죄 가해자들을 범죄자로서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을 때, 노인범죄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며, 노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 여성, 정신지체 여성, 아동의 범죄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노인범죄에 대한 지나친 관대한 처분은 오히려 노인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경찰 차원에서의 노인범죄를 예방 대책은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적 대책의 추진을 요구한다. 노인범죄가 일어나는 사회적 배경에는 노인문제가 있으며,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도 노인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범죄 유형별 특성과 대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 추세는 노인문제와 노인범죄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광주·전남 노인의 전화. “노인의 성, 정년은 언제인가?”. 제2회 노인 보건·복지 세미나 주제발표 자료집. 1997.
- 구자숙·이현희·원영희·전영실. “노인의 범죄 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구현아·이웅혁.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 권승 외. 『사회문제론』. 공동체. 2008.
- 김근홍. “노인문제와 노년학”. 김근홍 외.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
-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 이해』. 학문사. 1999.
- 김승용. “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일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0년 가을호. 2000.
- 김인숙.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11. 1998.
- 김종오. “한국의 노인범죄 실태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진순. “노인보건 의료 및 건강서비스”. 『노년학의 이해』. 대영출판사. 2000.
- 김태현. 『노인학』. 교문사. 2007.
-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 오홍수.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연구』. 2000년 봄

- 호. 2002.
- 이건종·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이상현. “상습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 이영남. “일본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사회과학논총』, 3(1). 1998.
- 이영남.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26. 1998.
- 이용혁. “노인범죄 원인에 관한 탐색적 고찰”. 『수사연구』, 통권 299호. 2008.
- 이종원.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이현희·원영희·구자숙. “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2). 2003.
- 장준오.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0권 1호. 2009.
- 장준오·유홍준·정태인·이완수·노용준.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08. 2008.
-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
- 정태인 외. 『사회문제』. 그린. 2008.
- 지광준.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 『한국노년학』, 제21권 3호. 2002.
- 허경미.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004.
- 허경미. “도시 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2). 2006.

대검찰청. 『범죄분석』(1997-2008).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결과」. 2001. 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2007.10.

통계청. 「2009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09.

2. 국외문헌

Akers, Ronald L., Anthon J. La greca and C. Sellers, Theoretical Perspectives on Deviant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B. McCarthy and R. Langworthy(ed.) *Older Offenders*. Praeger. 1988.

Dupree, L. W. K. Broskowski, & L. Schonfeld. (1984). The gerontology alcohol project: a behavioral treatment program for elderly alcohol abusers, *The Gerontologist*, 25.

Fishman, Crime Wave as Ideology, *Social Problems* 25, 1977.

Flynn. (2000). Elders as perpetrators in *Elders,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pringer: 43-83.

Kercher, K. (1987). The causes and correlates of crime committed by the elderly, *Research on Aging*, 9(2).

Malinchak, A. (1980). Crime and geront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

Shichor, Kobrin, The Extent and Nature of Lawbreaking by the Elderly: A review of arrest statistics, *Elderly Criminals*, Oelgeschlager, Gunn and Hain Publisher's Inc., 1994.

Wilbanks, W. & D. Murphy. (1984). The elderly homicide offender. In Wilbanks, W. & K. P. Kim, (eds.). *Elderly criminals*. Washing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책임연구보고서 2009-13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과 대책

발행일 : 2009년 12월 24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